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박종찬
편집주간 김성원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7-523 골든OT 411호
Tel. (051)245-7551~3 Fax. (051)245-7550

제작 사인텔 Tel. (051)245-2337

동문 기여도 극대화 '박종찬號' 출범

총동창회 조직표 발표... 운영위원 신설 “동문들 애교심·자부심 높이는 데 목적”

지난 3월 7일 출범한 경남중고 총동창회 '박종찬 號'를 이끌어 나갈 조직이 완성됐다.

박종찬 회장은 지난 5월 15일 경남중고 총동창회 조직표를 발표했다.

박 회장은 “이번 총동창회 조직표는 동문들에게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동문회에 자발적인 기여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 동문들에게도 살아있는 총동창회의 조직 현황을 알려 애교심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직표를 통해 부회장단에 일정 인원을 확보해 재정적 도움을 받고 차기 총동창회장 인물 발굴의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표를 수시로 수정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이번 조직표는 동창회를 위해 어떤 동문들이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새롭게 구성되는 후배기수들의 총동창회 진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8.9, 10, 11면>

박 회장은 “조직표에 없는 동문은 동창회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는 동문인데, 갑자기 나타나 동창회장을 한다고 하면 안된다”며 “앞으로는 동창회에 대한 기여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동문은 동창회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조직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운영위원의 신설이다.

박종찬 회장과 동기인 25회 졸업생인 운영위원은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는데 박 회장의 ‘아버지’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박 회장 대신 동창회나 모교인 경남중고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동문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하게 된다.

운영위원들은 연회비 100만원을 내게 된다. 다음으로 신설된 조직이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이다. 신문 방송 등 언론사 간부 출신 10명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동창회보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자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총동창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의 집행과 관련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분과위원회가 확대개편됐다.

상임, 재정, 법률자문, 홍보, 조직, 대외협력, 사업, 지역, 총무, 봉사, 문화, IT, 보건의료, 직능, 기획 등 모두 15개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됐다. 25회 동문부터 41회 동문까지 포진해 후배기수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분과위원회를 총괄할 상임분과위원장에는

박종찬 회장과 동기인 송정규 동문(25회)이 맡았다. 분과위원장들은 연회비가 200만원이다.

총동창회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게 될 감사에는 엄재홍 동문(28회)과 박창언 동문(29회), 부산 고법원장 출신인 윤인태 동문(30회) 등 3명이 임명됐다.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한 최고 원로들의 모임인 고문단에는 안강태 회장(11회)이 명예회장을 맡았고 정행권 회장(9회)과 이용희 회장(19회), 오거돈 회장(21회) 허범도 회장(22회) 박대동 회장(22회) 이병찬 회장(23회) 등이 포진해 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의 이전 기수중 총동창회 임원을 지낸 동문들의 조직인 자문단에는 모두 20명의 자문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남진현 동문(19회)이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연회비는 100만원이다.

그리고 25회 부터 46회까지 모두 46명으로 구성된 메메드급 부회장단을 발족시켰다. 31

회가 10명으로 가장 많다. 연회비는 역시 100만원이다.

각기수별 동창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3회부터 52회까지 구성돼 있다.

그리고 각 지구 동창회는 남부산 지구동창회와 중부산지구 동창회, 사하지구동창회, 해운대지구 동창회, 동래·금정지구 동창회로 분포돼 있다. 이전보다 동래·금정 지구 동창회가 새로 발족했다.

직능별 동호회는 동문 경제인들의 모임인 ‘덕경회’와 부산시내 동문 공무원들의 모임인 ‘용마회’, 해양관련 동문들의 모임인 ‘등대회’, 동문 언론인들의 모임인 ‘언론인클럽’, 우리들의 만남, 세우회, 용건회, 기독교동문회, 경불회, 등이 있다.

동호회에는 덕형리, 경야회, 신약회, 골프회, 평마회, 당구회, 합창단 등이 있고 해외지역 동창회로는, 미국은 뉴욕,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 5개 지구 동창회가 모임을 가지고 있고, 뉴질랜드, 호주, 태국, 베트남, 캐나다 등에도 동창회가 있다.

또 중국에는 산둥, 북경, 상하이 등지에 동창회가 결성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 1주년 축전

문대통령님,

취임하신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취임 초반 국내외적으로 맞닥뜨리는 요구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대화로 주도하시는 모습을 원거리에서 우려섞인 관심으로 지켜보았다는 표현을 먼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우와는 달리 이루어내는 수많은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주변의 일부 불안정한 잡음을 확실히 잠재우는 지도력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전대미답의 두번째 대통령을 배출한 총동창회에 큰 자부심을 안겨주시는데 대해 정말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지금 동문회도 세대교체에 따르는 대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동창회관구입 프로젝트 등 나름 최선을 선택해 간의 전통계승,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임때 천명하신 3가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근간으로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라는 자리는 정말 고독하다고 합니다만 꼭 그해야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를 끼치지 몰라 먼발치에 있는 동문회쪽으로도 귀를 열어두시기를 조언 드리며 다시 한번 성공의 취임 1년을 축하합니다.

2018. 05.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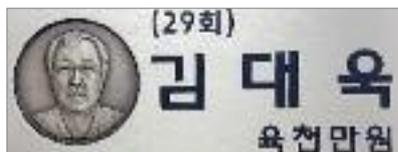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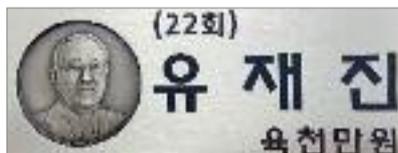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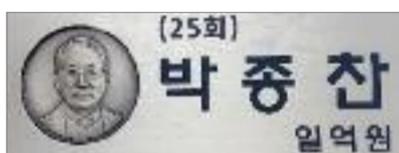
경남중고총동창회장 박종찬



12회 졸업 60주년 홈커밍데이



12회 졸업 60주년 홈커밍데이가 지난 4월 17일 모교인 경남고 교정에서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교정에서의 행사를 마치고 전원 일본 시모노세키로 우정여행을 떠났다. 경비는 모두 윤학근 동기회장이 부담했다. <관계기사 4.5면>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0회)>



총동창회관 구입기금 고액 모금운동

모금현황(2018년 5월 22일 현재)

- 25회 박종찬 1억원
- 22회 유재진 (6천만원회관기부5천+발전기금1천)
- 25회 김진철 (6천만원회관기부5천+발전기금1천)
- 29회 김대옥 (6천만원회관기부3천+발전기금3천)

• 모금 계좌
부산은행 101-2053-6720-01,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리더스경제신문 '총동창회' 오보기사 정정보도도 받아

언론중재위 조정으로 24일자 신문과 인터넷판에 게재



오는 6월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로 오거돈 전 장관(21회)과 서병수 부산시장(25회)이 각각 공천을 받아 4년전처럼 두 동문이 다시 리더스경제신문을 벌이게 됐다.

동창회는 이에따른 동문회의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7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박종찬 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총동창회 집행부는 2018 지방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동창회 집행부는 엄정중립의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 와중에 부산지역 일간지인 일간리더스경제신문에서 4월 8일자 인터넷판과 4월10일자 신문에 '경남고 총동문회 집행부 선거부담...친徐인사 특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리고 4월12일자 인터넷판과 신문에 취재수첩을 통해 '결과 속이 다른 경남고 동문회'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기사의 내용은 한마디로 경남중고 총동창회를 서병수 라인으로 바꾸기 위해 24회로 넘어가야 하는 총동창회장을 23회에서 바로 서시

왼쪽사건 지난 4월10일자 '리더스경제신문'에 게재된 총동창회 기사, 오른쪽사건 지난 4월12일 '리더스경제신문'에 실린 리더스경제신문에 게재된 총동창회 기사 정정보도.

장과 동기인 25회에게 넘겨 주었다는 것과 오거돈 전 장관 성향의 류명석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친서병수 라인의 옥동훈 총장을 임명했다는 것이다. (사진 참조)

이같은 보도는 경남중고 6만8000여동문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명예훼손으로 보고 편

"경남고 총동문회 집행부 '선거부담' 친徐인사 특세"
"결과 속 다른 경남고 총동문회" 기사 일부 내용 정정

본회총회기... (정정된 기사 일부 내용)

집위원회의를 열어 정정보도 등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5월 2일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임 사무국장에 신승렬 동문(36회)



경남중고 총동창회 신임 사무국장에 신승렬 동문이 선임됐다. 신 신임 사무국장은 경남중고 총동창회에서 공채로 선발된 최초의 사무국장이다.

신 사무국장은 경남고 36회로 한양대 토목공학과출신으로, 씨티은행 지점장과 경남은행 부장을 역임해 전공과는 다른 길을 걸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재학시절에는 학도호국단 간부를 지냈으며, 재한양대 경남중고동창회 회장과 재경 36회동기회 총무 등으로 동창회 관련 업무를 봤다. 총동창회는 동창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국장을 공채로 뽑기로 하고 지난해 동창회보에 공고를 내 지원자 중 가장 뛰어난 신승렬 동문을 지난 4월10일자로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 클린 동창회 사무실 협찬**
- 냉난방기 : 박종호(31회)
 - 사이드 데스크 및 OA 데스크 : 신수열(31회), 용마회
 - 커튼, 손건온수기, 철거 및 폐기비용 : 최장혁, 남우진, 김영훈, 김용식, 김길호(36회)
 - 소파 : 박종환(34), 류명석(31회)
 - 냉장고 : 박종찬(25회)
 - 사무용 청소기 : 이양걸(41회)
 - 사무실 청소 : 박이현(38회) 김영희(43회) 주정오(한중현(52회))

총동창회 밴드가입 이벤트 '경합치열' 2,000명 가입

박철중(36회) 260명으로 1등, 이상학(39회) 244명으로 2등 차지



지난 5월15일 롯데호텔 부산 43층 도림에서 열린 '경남중고 총동창회 밴드 가입이벤트'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최고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경남중고 총동창회 밴드' 가입이벤트가 지난 5월15일 자정을 기해 막을 내렸다. 이번에 실시된 밴드 가입이벤트는 '밴드'라는 매체를 통해 동문들의 소식을 더 많이 공유해 동창회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박종찬 회장이 상품권 경품을 걸면서 시작했다. 총동창회 밴드는 많은 동문들이 가입해서 소식을 주고 받음으로써 2달에 한번 씩 발간되는 동창회보가 가지지 못하는 신속성과 공간성을 보완해 동문들의 소통

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동문들간의 소통 뿐 아니라 지구촌 너머에 있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거주하는 동문들도 가입해 해외 동창회의 소식을 전해주는 장이 마련됐다는 것이 총동창회 밴드의 가장 큰 수확이다. 특히 졸업 후 소식을 몰랐던 동기들을 만나는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이벤트 내내 1위와 2위의 순위가 바뀌는 등 손에 땀을 쥐게하는 장면도 연출됐고, 36회와 39회의 기수별 경쟁도 밴드 가입 동문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밴드가입 동문이 358명일 때인 지난 4월 24

일에 이벤트가 실시돼 5월25일 현재 2,000명의 동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 이번 이벤트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이벤트 시상식이 지난 5월17일 롯데호텔 부산 43층 도림에서 열려 박종찬 회장이 사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지급했고 식대도 지불했다.

수상자 이외에도 15등까지 초대돼 식사를 함께 하며 동창회 발전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다.

- ◇수상자명단
 △1등 박철중(36회) 260명 상품권 50만원
 △2등 이상학(39회) 244명 상품권 50만원 (시상금 30만원+보너스 20만원)
 △3등 김태호(38회) 149명 상품권 30만원
 △4등 배영진(40회) 136명 상품권 20만원
 △5등 여성조(25회) 103명 상품권 10만원

- ◇등외수상자명단
 △6 등 임창섭(36회) 78명 △7등 정아준(33회) 64명 △8등 김인구(24회) 60명 △9 등 김태홍(32회) 42명(불참)
 △10등 신동훈(38회) 36명 △11등 문진형(37회) 31명(불참)
 △12등 최효식(31회) 31명 △13등 박종찬(25회) 30명 △14등 정윤희(36회) 24명 △15등 김치운(28회) 23명(불참)

임원들 40일만에 연회비 100%완납에 감사”

부회장단 모임

“동창회 임원들이 내는 연회비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동문은 임원단에 넣지 않겠다”

앞으로 총동창회 임원에 임명되고 연회비를 내지 않으면 임원단에서 제외된다.

박종찬 회장은 지난 4월 16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부산 42층 아스토룸에서 열린 ‘2018년도 집행부와 부회장단 합동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옥동훈 사무총장(25회) 신승렬 사무국장(36회) 등 총동창회 집행부와 송정규 동문(25회) 등 총동창회 부회장단 39명이 참석해 총동창회의 발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옥동훈 사무총장의 사회로 참석자 모두에 대한 개인 소개가 끝난후 마이크를 넘겨 받은 박종찬 회장은 “여기에 참석한 부회장들이 모두 연회비를 납부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연회비 실명제 실시로 회비 납부율 100%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모두 1억4,400만원의 연회비가 들어 왔다”며 “이 금액은 올해 예산액을 초과한 액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창회를 이어받는 후배들이 편하게 동창회를 계승하고 이끌어 가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동창회 신규 조직에 대해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을 받았다.

박종찬 회장은 조직표를 들고 참석자에게보여주며 “조직표에 적혀있는 명단이 주는 의미는 총동창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는 반드시 이 명단안에 들어있는 동문이 차기 회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상시 동창회에 공로가 없는 동문은 회장직을 맡으면 안된다”면서 “조직표에 나와 있는 명단이 우리 총동창회 인재 풀이다. 동창회보



지난 4월 16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 ‘총동창회 집행부와 부회장단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동창회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회비 실명제’ 안내면 임원서 제외 동창회보 구독료 4,000명 납부 목표

와 조직표를 통해 어느 동문이 어떻게 동창회에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동창회 조직에 대해 박 회장은 “총동창회 조직 속에 있는 직능단체와 각종 동호회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조직은 다 제외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만 이번 조직표에 넣겠다. 만약 활동을 하는데 조직표에서 빠져 있다면 언제든지 말하면 추가로 넣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동창회 구성원들간의 정보의 쪼들인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인원이 동창회 성공의 키워드”라며 “올해 총 4000명 납부를 목표로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동래 금정과 양산지역 동창회와 53회, 54회 동기회 결성 등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 손영태 부회장(31회)은 “회장님이 열정적으로 동창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후배들이 없는 동창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학교를 옮겨야 미래지향적이고 후배들이 많이 나타나 동창회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과거에도 거론됐던 학교 이전 문제를 끄집어 냈다.

그러자 박회장은 “학교를 옮길 타이밍을 놓쳤다”며 “학교를 옮기는 것도 좋지만 계속 후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류명석 부회장(31회)은 “사무총장 지명을 받았으나 여러가지 사정상 철학을 해달라고 요청해 처리했는데 뒷말이 많아 기분이 좋지 않다”며 “사무총장 퇴직금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으니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 부회장의 주장은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황유명 동문(29회)이 동창회 자금 2,000만원으로 본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가

져 가고 나머지 500만원은 여직원 2명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것. 그런데 동창회 사무총장은 퇴직금을 받는 종업원에 해당이 되지 않아 퇴직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 “총동창회 명부를 발간하면 인쇄를 맡은 인쇄소에서 총동창회에 3,000만원을 줬는데, 그 돈이 다 사라졌고 흑자였던 동창회보 자금도 바닥이 났다”며 “자금의 용처를 정확히 밝혀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조사를 해보니 총동창회 기금 1억5,800여만원이 전용된 흔적이 있다. 전임 총장이 13년을 하다보니 예산이 남는 곳의 돈을 빼서 부족한 곳에 사용한 것 같다. 조사가 끝나면 정확한 내용을 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황유명 사무총장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는 “동창회 사무총장은 고용주에 해당돼 퇴직금을 가져 가면 안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본 결과라며 “이미 가져간 금액은 위로금으로 돌리고 나머지 퇴직금—은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단체사진을 촬영한 후 모임을 끝냈다.



총동창회장과 52회 동기생들과의 대화의 시간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랜만에 교가를 불렀더니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다”

‘총동창회장과 52회 동기생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지난 4월 19일 롯데호텔 부산 41층 아스테룸에서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김익수 이 상화 허택 오양득 운영위원(25회) 옥동훈 사무총장 신승렬 사무국장 김지운 52회 동기회장 및 동기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은 현재 총동창회 공식 직제상 제 일 막내 기수인 52회들을 격려하고 경남중고 동창회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참석자 소개가 끝난 후 박종찬 회장은 “경남중고 25회 졸업생들이 뜨고 있다”며 문재인 서병수 두 동기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소개한 후 “25회를 거꾸로 읽으면 52회가 된다. 52회에서도 대통령이나 빌게이츠 같은 인물이 나올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리고 27년전 25회 동기생들이 만든 동기회보를 직접 가지고 나와 소개했다. 박 회장은 회보에 실려있는 문재인 서병수 동문을 가르키며 “누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부산시장이 될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며 “그러나 27년이 지나다 보니 대통령도 되고

‘교가제창에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

52회와의 만남...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성공의 지름길’

, 부산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중에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며 “동기들끼리 네트워크를 많이 해라. 그것이 재산이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도와주면 더 편하게 목표지점으로 갈 수 있다”고 충고했다.

박종찬 회장의 사회로 일문일답이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김지운 동기회 회장은 “52회의 가장 큰 이슈가 올해 개최되는 홈커밍데이”라며 “홈커밍데이 행사를 할 수 있게 모교인 경남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진현 자문위원장이 즉석에서 학교에 연락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답변을 했다.

다음 질문자로 나선 김민철 동문은 “우리 기수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나, 동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동창회에 멘토가 있느냐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박종찬 회장은 “멘토리는 정식 조직은 없지만 모두 비선으로 연결돼 서로 도와고 도움을 주고 있다”며 “사무국에 연락하면 연결을 해준다”고 답했다.

그다음 운영위원으로 참석한 오양득 동문(25회)은 “25회 동기들이 박종찬 회장을 돕는 이유는 박 회장이 27년 동안 동기회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며 “동창회장으로서 동창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동창회 집행부와 52회 동기들의 상견례가 끝나고 롯데호텔 부산 후문 맞은편 아지트로 옮겨 2차 술자리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52회 동문들은 같은 좌석에 앉은 집행부 선배들에게 동창회와 모교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일부 동문들은 사업이야기 르 하면서 화기애애한 자리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2차 모임은 김익수 운영위원이 전액 스폰을 했다.

八旬 나이에 바라보는 德馨館은 '나의 분신'

12회 졸업 60주년 홈커밍데이 경남고와 일본에서 열려

“허겁지겁 이정표도 없이 얼마를 달려왔던가 거친 풍랑을 만나야 했고 폭풍우에 휘말리기도 했던/연륜만큼 커졌을 가슴 그러나 아직도 서툰 삶/국화 만발한 교정은 그런 우리를 토닥인다”

위 시는 김영미의 '교정을 거닐며'의 한 구절이다. 경남중 · 고 12회가 졸업 60주년을 맞이하여 모교를 방문하고 일본(북큐우슈우) 여행을 감행하기로 했다. 60년은 인간사가 한 바퀴 순환하는 갑자(甲子)로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다. 12회는 올해 연세가 80세다. 6·25전쟁 후 어수선했던 시대에 졸업했고, 그 후 4·19 민주화 운동과 5·16군사혁명 등 굵직한 현대사의 물줄기를 몸소 겪었다. 12회는 특별한 기수다. 모교를 상징하는 덕馨관을 지을 때 손수 돌을 날랐다. 그래서 덕馨관을 바라보는 심정이 남 다를 수밖에 없으며, 모교의 전통을 쌓았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난 4월 17일(화) 오전, 서울역 대합실이 시끌벅적했다. 마치 전세라도 얻은 양 3층 공간은 백발의 신사들로 눈부시다. 서울 유학시절 장시간 시달려야 했던 부산이 이제 두어 시간 만에 도착하니 세월의 무게를 실감했으리라. 점심 식사 시간에 부산 정영철 동기가 정성들여 준비한 '웃으며 삼시다' 코너는 진한 동기가 느껴진다. 마침내 60년 전 청운의 꿈을 안고 떠났던 구덕 기숙이 시야에 들어선 순간은 가슴이 먹먹했을 것 같다. 선배님들의 꿈과 땅이 알알이 서린 덕馨관은 굽은 소나무처럼 여전하다. 국산관에서 총동창회 박종찬 회장(25회)과 김기련 교감이 참석한 졸업 6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됐다. 윤학근 동기회장은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축사를 낭독했다.

모교방문 행사에서 어느 선배님은 재학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을 아쉬워했다. 물론 수업 중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섭섭한 점은 필자로선 이해됐다. 정든 교정을 뒤로 하고 일본행을 위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선배님 중에 일본을 다녀온 분이 많겠지만 이런 배편은 드문 것이라 본다. 식사 후 갑판에서 윤 회장을 비롯한 동기분들이 모여 이야기 꽃을 피웠다. 그 순간만은 “고목에 꽃이 피니 마음은 그대로(老木開花 心不老)” 자체였다. 시야에서 떨어지는 부산항의 불빛이 우리를 배웅해주는 것 같았다. 선내에는 욕조를 갖춘 묵욕탕이 있어 새삼 놀랐다. 이런 호사는 배 여행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았다. 1877년 김기수(金綺秀:1832~?)는 현해탄을 건너는 심정을 “부산포에서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나가니 위아래(하늘과 바다)가 한 빛깔로 푸르른 데 사방을 바라보니 가이없고, 물결은 질펀하며 아득하다”라고 했다. 항해 내내 파도도 잠을 자는 듯 우리의 잠자리를 촉박했다.

다음 날 아침 시모노세키(下關) 국제항에 하선했다. 과거 선인들이 일본인에 대한 기록을 보면 대부분 부정적이다. 그런데 이덕무(李德懋:1741~1793)는 원현천(元玄川)의 말을 인용하여 “일본에는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많아 진정을 토로하고 심금을 명백히 하며 문필도 모두 귀히 여길 만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여겨 무시하고 언뜻 보고 나무라고 헐뜯기를 좋아한다.” 고 좋게 보았다. 이왕 일본에 왔으니 이덕무의 말을 마음에 새겨 선진국의 배울 점을 찾고 싶었다.

온천의 도시 벳푸(別府)는 유황냄새가 맡해 주듯 높은 지열(地熱)로 분기(噴氣)하는 모습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이 12회 졸업 60주년 홈커밍데이에 참가하기 위해 모교인 경남고 교정으로 입장하는 동문들에게 일일이 축하의 악수를 하고 있다.

을 지옥(地獄)같다고 부른다. 이날 날씨는 우리를 환영하듯이 청명했고, 중국 관광객 폭탄도 비커가 이국(異國)의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도처에 한글로 표기한 설명과 곳곳에서 들리는 익숙한 말은 요즘 일본을 찾는 한국인의 실상을 보여준다. 일본의 상술을 엿볼 수 있는 '가마도지옥'은 특히 인상 깊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상철을 지나야 하는데, 이 인에는 기모노 복장을 한 여자 사진이 걸려 있다. 이곳을 더운 물로 뿌리면 나체로 변한다. 하나의 재미지만 남성의 심리를 자극해 상품화하는 탁월한 재능에 감탄했다.

'유후인(由布院) 온천(오이타현 由布市)'은 시골 온천의 분위기를 잘 간직한 곳이다. 이곳에는 호수의 바다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함께 솟아나는 '金鱗湖(금린호 · 긴린코)'가 있다. 이 호수의 명칭은 1884년 유학자 모리 구소(毛利空桑)가 호수에 있는 물고기 비늘이

석양에 빛나는 것을 보고 명명했다고 한다. 여기서 따온 햇살이 호수를 수놓은 걸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버스로 이동하면서 목격한 일본의 지형은 우리와 흡사했다. 일본도 국토의 70%가 산이라 그런지 친숙하게 다가왔다. 임진왜란 때에 잡혀온 도공(陶工)들이 이런 지형을 조국 산마 땅향의 슬픔을 달렸으리라. 창밖으로 보이는 농촌의 모습은 잘 정돈되어 있어 질서정연해 보였다. 홍승수(서울대 물리전문화) 교수는 일본을 경험한 글에서 “일본의 구석구석은 운보다 실력, 우연보다 필연이, 혼돈보다 정리가 철저히 지배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규격화된 재미없는 사회라는 뜻이다. 일본과 한국은 서구의 독일과 이태리에 비유할 수 있다. 재미없는 천국 독일과 재미있는 지옥 이태리 말이다.

숙소 아하타로야호텔은 비교적 큰 건물로 (5면에 계속~)

윤학근 회장 축사

12회 동기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교 김기련 교감선생님, 또 박종찬 경남고등학교 총동창회장님, 사무총장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60년만에 모교 구덕 캠퍼스에 도착하니 울적한 감정이 일어 저 개인적으로 이은상 선생이 작사하고 홍난파 선생이 작곡한 '옛 동산에 올라'라는 가곡을 소리높여 불러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1955년 3월 3.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남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58년 3월 490여 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돌아켜보면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치른바있고 졸업 40주년,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80노구들이 가지는 졸업 60주년 기념행사야말로 더욱더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490명 경남 중학을 졸업하고 타 고등학교에 입학한 180명을 합쳐 총 670명이 경남 중고등학교 12회 동기 우리 모두들입니다.

그중 210여 명이 하늘나라로 먼저 가고

미국 등 재외 거주하는 동문이 20여 명 또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배우자의 병수발로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이 많습니다.

10년 후 졸업 70주년 행사에는 오늘 참석하신 동기생 90여 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 끝나면 자기가 배웠던 교실 책상에 앉아 모교의 젊은 기를 맘껏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 12회 졸업생 670여명 중 210여명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서울 동기생 75명은 곧이어 3박 4일간의 북큐우온천여행을 떠납니다.

3박4일간의 여행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동기들이 모두 건강하게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돌봐주시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풍랑 예고로 3월 20일 여행이 취소되고 오늘 다시 여행을 주선하신 재경 동 기회 보물인 최경규 총무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동기회 회장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종찬 회장 환영사

짧은 시간이지만 교정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면서 젊음의 시절로 돌아가 환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한 순간에 마음을 젊어지게 할 것이며 몸도 젊어지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선배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6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하시는 것을 저도 벤치마킹을 해서 선배님 나이에 교정에서 같은 감동을 느끼고 싶습니다. 학교 방문 후에 일본 여행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또 다른 추억거리를 만드시고 기고를 해 주시면 동창회보에 실어 단합된 12회 동기생 모습을 모든 동문들에게 전달을 해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이 귀한 기회에 대선배님들 앞에서 동문회의 안타까운 실정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36대 총동창회장입니다만 지금까지 선배님들의 귀중한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역사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타 고교 동문회에 비해서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연로해지시고 타계하시지만 소중한 간직하고 있었던 학창시절의 소장품들을 받아줄 곳이 없어 너무나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지난 3/7일 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선

배님들을 위하고 후배님들에게 꼭 필요한 동창회관 구입을 제 임기 중제일의 실천목표로 했습니다. 재경동창회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약70억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정해진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교를 지키고 있는 총동창회에서 독자적으로 회관구입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약30억에 모금목표 20억을 합쳐 약50억으로 5층 건물을 구입해서 역사관을 비롯해서 사무국, 회의실, 커피숍 등을 마련해 수익성도 확보해서 은행이자 거의 없는 시기를 극복해야만 영원한 동문회가 됩니다. 여유가 있는 선배님들의 기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효과적인 기부운동을 위해 1인 3천만원 고액기부를 전제로 하고, 기부하신 동문은 이름과 얼굴을 새긴 동판을 회관 입구에 부착해서 영원히 동문역사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금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로 1억을 기부하였으며 약 한달만에 2억3천만원의 기부금이 접수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이 소장하고 계신 학창시절의 어떤 물건이라도 기증을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70주년 홈커밍데이 때 다시 한번 교정을 찾아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환영사를 마칠까 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70주년 행사에도 꼭 참석하자”

‘경남고 장한 용마들 춤을 추세 덩더꿍’ ‘부산항, 끈끈한 인연 만나고 또 만나게’

〈4면에 이어서〉

숙소 내부는 낱짝해 좋았다. 여기서 식사를 겸한 정기총회가 열렸다. 배정받은 방에 짐을 풀고 일본전통 복장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선배님들은 이런 색다른 분위기에 희희낙락했고 일본 전통 음식상에 우선 눈이 호강했다. 윤학근 회장은 모두의 건강을 빌면서 10년 후 70주년 행사에도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경균 총무는 이번 행사가 실행되기까지 힘써준 이규만 동기와 윤학근 회장에 대해 큰 박수를 유도했다. 어느 선배님은 분위기를 주체할 수 없어 옛 생각을 구성지게 불렀다. 마치 구덕산의 동산을 옮겨놓은 듯 했다. ‘뿔 동산 아지랑이 할미꽃 피면/꽃땀기 매고 놀던 옛 친구 생각난다/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보면/놀던 바위 외롭고 흰구름만 흘러간다/모두 다 어디 갔나 모두 어디 갔나/나 혼자 여기 서서 지난날을 그리네’

여행에서 선물은 빠질 수 없다. 가이드 안내로 면세점에 들렀다. 이곳은 한국의 명동 같은 곳 같다. 손님들 대부분이 한국인이며 종업원도 한국어가 유창하다. 한국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馬油(마유:말기름)’는 피부 주름을 없애주는 인기선물 품목이다. 모두들 선물꾸러미가 가득하다. 선물을 받을 부인의 얼굴을 떠올리는 표정에서 주름 몇 개는 없어진 것 같다. 면세점을 나오면서 다른 마트에 들렀다. 60대로 보이는 계산대 직원은 일본인 특유의 말씨와 표정으로 손님을 대한다. 저 미소 속에 감춰진 그들의 속내(흔네:本音는 무엇일까? 천의 얼굴을 가진 그들의 가면극 ‘노멘(能面)’을 보는 듯 했다. 호텔을 떠나는 날, 버스가 떠나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 지배인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일본은 신(神)의 나라다. 섬이라는 한정된 지형에 지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가 괴롭힌다. 자연히 뭇가에 의탁하고 싶은 보호막을 형성한다. ‘신궁(神宮)’은 그런 존재다. 현재 일본의 ‘영웅만들기도’ 이런 신궁의 전통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신궁 관람은 일본인은 참배로 외국인인은 관광을 위한 것이니 목적이 다르다. 우리가 방문한 ‘다사이후텐만구(太宰府天滿宮)’은 학문의 신으로 유명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845~903)를 모신 곳이다. 그는 중국 문학연구가로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좌천되어 가난과 병고로 숨진다. 그 후 이곳은 화재, 질병,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았고 마침내 억울한 혼령을 달래기에 이른다. 그는 살아서

는 학문으로 추앙 받았고, 죽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천신(天神)이 되었다. 그래서 텐만구는 입시철이 오면 일본 각지에서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찾는 명소로 불린다. 또한 이곳은 매화로 유명하다. 그가 좌천될 때 마침 매화가 여기저기 만발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착안한 매화떡은 모든 가게에서 하나에 120엔씩 팔고 있었다. 유후인의 ‘긴린코’에서도 느꼈지만 일본인은 전통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데 뛰어나다는 것이다. 역사의 유구성은 우리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면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가게 입구에서 할인판을 들고 3개 국어로 고객 행위를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은 중국 상해에서 온 유학생이다.

다시 부산항 배를 타기 위해 시모노세키로 이동했다. 도중에 조선통신사가 도착한 곳이었다고 해서 들었다. 돌에 새긴 ‘朝鮮通信士上陸淹留之地’는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종필 씨 글씨다. 믿음을 뜻하는 ‘통신사’ 호칭은 1636년 때부터였으니, 그전까지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임진왜란의 후유증이 그만큼 컸다는 사실이다. 바로 맞은 편에 ‘아카마 신궁(赤間神宮)’은 당시 통신사절단의 숙소로 사용됐다. 이 신궁은 1185년 불과 여덟 살로 죽은 안토쿠 왕(安徳王:재위 1180~1185)을 모신 곳이다. 안토쿠 왕은 헤이안(平安)시대의 무장 다이랴노 기요모리(平清盛)의 외손자였다. 당시 무사집단 겐지(源氏)와 헤이시(平氏)가 최후의 전투를 벌인 단노우라(壇ノ浦)에서 헤이시 일파가 패하자 외할머니 도키코는 신새(神靈)를 옆에 끼고 보검을 허리에 찬 채 차마쪽으로 안토쿠 천황을 감싸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때 안토쿠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겁니까?”라고 묻자 “극락정토로 데려가는 것이니 과도 말에도 도성이 있습니다”라며 천황을 달랬다 한다. 나라는 달라도 권력의 비정함은 어디나 똑같다. 신궁 안에 전시된 일본도가 섬뜩하다. 이런 칼로 명성황후를 시해했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주마간산(走馬看山)이지만 일본을 체험한 소중한 시간이였다. 부산항 배에 승선하여 마지막 밤을 보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평생의 이탈자 없이 건강한 선배님들에게서 노익장을 느낀다. 짧은 시간 동안 몇몇 선배님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대부분 한창 때 시절 이야기로 그 자체가 현대



①졸업 60주년 홈페이지를 맞아 12회 졸업생 동기들이 단체로 일본여행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②12회 졸업 60주년 홈페이지 행사에 열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동기들이 화기에대한 분위기로 환담을 나누고 있다. ③졸업 60주년을 맞아 12회 졸업생들이 모교에서 교가를 부르고 있다. ④12회 동교회 윤학근 회장이 경남고 김기연 교감에게 모교발전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며 모교사의 한 페이지다. 건강하실 때 채록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선배님들은 시대의 은총을 듬뿍 받은 세대다. 농업과 근대화와 정보화까지 이제 4차산업혁명까지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기획한 원투어 여행사 원승연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서울역에서부터 부산역까지 80노구를 일일이 챙기느라 피곤할 텐 데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대했다. 일정 곳곳에 세심함이 배어 그나마 피곤을 털 수 있었다. 더구나 일급 가이드를 배치해 줘 버스 안에서 귀로 듣는 일본이야기가 쏠쏠했다.

이덕무는 친구와의 만남을 기록한 ‘천애지거서(天涯知己書)’에서 “먼저 나지도 않고 뒤에 나지도 않아 한 세상에 함께 태어났구나! 느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천지여! 부모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不先不後 并生一世 不南不北 同住一鄉 可感可悅 天地父母 多謝多謝)”라고 했다. 바로 83명 12회 선배님들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정기정(전 창원MBC사장) 선배님은 83명이 60년 세월을 함께 버티면서 이뤄낸 이번 모교 방문과 일본여행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로 ‘진정한 영웅들의 귀환’이라고 했다. 필자는 10년 후 70주년 행사도 한분도 빠짐없이 참가하리라 믿는다. 선배님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정제(전 해양수산부장관)

선배님의 ‘경남고 동기들’을 소개한다. “졸업 후 육십년이 쏜길 갈소 동기여/반가워라 친구들 온갖 풍상 이겨내고/야구장, 울린 기상에 우리 다시 모였다/욕같이 갈리고 현해를 굽이치며/각지의 자리에서 크나큰 이름 내고/경남고, 장한 용마들 춤을 추세 덩더꿍/팔십여 동기들이 세월을 날리 뿌자/땀지게 당당하게 일본 땅 섭렵하고/부산항, 끈끈한 인연 만나고 또 만나게” 글-김동진 동문(34회)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참석자 - 부산: 강창수 김무성 김용해 김종일 문정수 박용운 안상직 오수봉 우정하 이윤언 장상근 장승재 정대식 정영철 허일민 △서울: 고광석 고규일 곽진영 구진웅 권봉현 권영술 권중락 김구화 김대는 김명희 김민철 김봉근 김성도 김영보 김영록 김영수 김원경 김일준 김성기 김정현 김진호 김훈호 박경백 박명식 박상도 박인영 박정일 박창수 박현준 배종섭 백응권 변무섭 변재용 서병기 서상현 서진홍 송세문 송영길 심용치 양성명 양재근 옥태운 윤학근 윤정연 문준화 이규만 -이상 길 이상현 이승문 이승태 이영우 이용희 이우길 이희동 장동석 장태성 정기영 정기정 정성영 정시전 정태복 정해문 조명호 조상현 조정제 최건성 최경균 최병훈 최수행 추영재 허정욱 허창운 황병운 황양남



일본 큐슈지역 문화 탐방에 나선 12회 졸업생들이 우정을 다지는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오페라와 국악 연주속에 너도 나도 '덩실덩실'

22회 졸업 50주년 홈커밍데이... 친구들과 반가운 조우



졸업 50주년을 맞아 모교인 경남고를 방문한 22회 졸업생들이 덕형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우리들 주위를 떠난 친구들도 꽤 많고 이제는 새로운 무엇을 찾기보다는 지난 세월을 반추하며 서서히 멋지게 떠날 준비를 할 나이에 이르렀나보다.

4월 22일 12시 부산역에서 서울, 해외 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기생 및 부인들이 도착하였다. 환영 나온 본부 장성덕 회장 외 다수의 열렬한 환영을 마친 후 준비된 버스에 분승하여 점심식사 장소인 구포집(사장 정영근 동기)으로 이동, 맛있게 점심식사를 마친 후 경남중학교로 도보 이동, 부산지역 친구들과 정겨운 조우를 하고는 경남중학교 최영화 교감선생님의 안내로 강당으로 이동, 경중 현황을 설명하고 최호림 재경동기회장의 발전기금 금일봉 전달 후,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경남고등학교로 이동하였다.

경남고 도착하여 정대호 교감선생님의 안내로 국산기념관으로 이동하여 경중 현황을 브리핑받고 본부 장성덕회장의 발전기금 금일봉 전달 후 덕형관 앞으로 이동, 미리 준비된 현수막 아래에서 모교방문 50주년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정든 모교를 떠나 기념행사장인 해운대 그랜드호텔로 버스로 이동하였다.

해운대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거행된 기념식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행사는 손용섭 동기회 기획이사의 사회

로 진행되었는데, 조흥기 본부 사무국장의 동시기회 입장으로부터 장성덕 본부회장, 최호림 재경회장, 김동환(뉴욕 거주) 해외 동문대표의 인사말과 기념케익커팅, 허범도 전 총동창회장의 건배 제의가 끝나고 고가제창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어 만찬 시간에는 은은한 음악 속에 지난날의 추억 뭉치인 경부합동 산행과 4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 관련 사진들의 슬라이드를 보며 양식코스정식과 와인, 위스키, 소주, 맥주 등 기호에 맞는 반주를 들며 답사의 시간을 가졌다.

2부행사는 특별히 섭외한 김경진(경고 44회)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뉴아시아 오페라단"의 아리아와 퓨전 국악 등이 연주될 때의 뜨거운 호응에 오페라단장께서 역시 경남고 출신들이라 다르다는 칭찬 아닌 칭찬도 들었다. 이어서 "그레몽"의 7080 기타 연주 및 노래로 흥을 돋구고, 끝으로 "록시"의 전자현악 3중주 연주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누가 먼저랄지 모르게 너도 나도 무대 앞으로 나와 예정에 없던 출판이 벌어졌다.

마지막으로 응원가 1번을 우렁차게 부르고, 역시 우리가 모일 때 대미 장식은 역시 "후라경고!"를 목청껏 외치고는 가을의 경부합동 산행 시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인사를 서울 부산 친구들이 마주치며 악수를

나누었다.

다음날 서울에서 내려온 동기들은 송도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우천 관계로 태종대 투어, 감천문화마을 투어를 생략하고 버스 탑승한 채로 거가대교 투어를 마치고 목장원에서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대선소주 반주를 곁들이며 맛있게 점심을 들고 4시반 수서행 SRT에 몸을 싣고 1박 2일의 50주년 홈커밍데이 및 고회여행 행사를 마감하였다. <글-손용섭22회 동기회 기획이사>

인사말 - 장성덕 동기회장

동기여러분, 어느덧 70 고회가 되었지만, 人生七十이 多飯事가 되어 人生七十古來稀란 말도 옛말이 된 요즘, 부산 동기들은 身老心不老라고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맘만은 청춘인 듯 건재를 과시하며 서클별로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모임은 동기회의 활성화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지 50년 세월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어제와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노후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난 날 들을 뒤돌아보며 하루하루를 한가롭게 지내는 생활이 일상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가와 건강을 삶의 최고가치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선용에 여유로움이 있어야 활기찬 노년이 담보되고 건강관리에 게으름과 소홀함이 없어야 성공적인 노후가 보장된다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다같이, 특별한 기술도 경제력도 필요 없는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한번 다짐하고 우리 모두 건강 부자 됩시다. 건강부자로 활기찬 노령과 성공적인 노후로 모두 모두 무병장수하시고 모두 모두 만수무강하셔서 10년 뒤 60주년 행사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바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참석해준 모든 동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궁금했던 친구들 안부를 물어가며 향후 서로서로 연락을 자주 취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참석자 : 무순, 2는 부부동반참석
강봉기(2), 강성봉(2), 김동욱(2), 윤한복, 손용섭 김동환(2), 김성연(2), 박철민(2), 최호림(2) 장성덕(2), 김원주, 김학균(2), 박홍조(2) 이영화(2), 허범도(2), 이문성(2), 김형국, 권영태 김정민(2), 한태길(2), 강상대(2), 김만성 김세곤(2), 배병한(2), 김수창(2), 안정환, 양한식 금명환(2), 김영수(2), 박인표(2), 변종호(2 김동진(2), 조원호(2), 조장현(2), 한태룡(2) 김도살(2), 김동원(2), 노평호(2), 이상협(2) 문태용(2), 김철현(2), 정병국(2), 김무술, 이상운 정해진(2), 조순태(2), 남백우(2), 한형우(2) 이흥기(2), 최대현(2), 배운영, 문원경, 송하중, 안계환 김성재(2), 김일준(2), 최학봉(2), 박승목(2) 진준하(2), 김공립(2), 서경덕(2), 김상수, 주정훈 김종암(2), 강성숙, 김정수, 유재택, 장호수, 김창해(2) 강화복, 김광무, 김기형, 김성태, 김승일, 강호일, 배춘식, 손봉룡 신종수, 안동진, 유인조, 윤기현, 윤동원, 임성규, 이성모, 이춘식 고병호, 김석영, 박행천, 박호병, 윤세진, 이원정, 이현경, 전재수 이영재, 장영근, 장무성, 전영철, 이웅규 최우현, 김명준, 최일용 고인준, 안영수, 이병수, 이우경, 전길홍, 허은, 홍태구, 최태식 조흥기, 박건수, 오세길, 박창섭, 이민성, 최성열, 허만주 한경규, 김문무, 김영철, 김형경, 배성안, 부근시, 심선호, 정진식 여상규 주우실



32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



| 일시 |
2018년 5월 26일(토) 14시 - 27일(일) 10시

| 장소 |
팬스타 크루즈

- 동기회장 이득우 • 재경회장 마승철
- 준비위원 김태홍, 이문영, 이용길, 이정돈

개교기념행사

찬란한 옥과 같이... 76년 커커이 쌓인 '용마 정신'



① 경남중 개교76주년 기념식이 열린 경남 강당에서 재학생들이 응원가를 부르고 있다. ②경남중 강당에서 열린 76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재학생이 교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중학교)
③경남중 강당에서 열린 제76주년 개교기념식에 참가한 총동창회 운영위원장인 이명찬 경성대 교수(25회)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중학교) ④개교기념식에 맞춰 열린 '경남 동문 선배 초청 진로-진학의 날' 행사에 참가한 동문들이 본관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⑤박종찬 총동창회장이 경남고에서 열린 개교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⑥개교기념식에 참석한 동문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⑦박종찬 총동창회장과 이명규 재경회장 등 개교기념식에 참석한 동문들이 야구부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날 박종찬 회장과 이명규 회장은 각각 50만원씩 야구부에 전달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법무법인(유한) 에이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에이스에서는 올해 1월에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심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김정학 변호사(경남중고 25회)를 새로운 구성원 변호사로서 영입하였습니다. 김정학 변호사는 동기인 문재인 대통령의 50년 지기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29년 동안 법관의 외길만을 걸어오다가 65세 정년퇴임한 최초의 판사로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고, 다양한 소송의 재판 경험과 폭넓고 깊은 법률지식을 갖춘 데다 열정 또한 남다릅니다. 저희 법인은 이렇게 훌륭한 자질을 갖춘 법조인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고, 앞으로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정학 변호사의 영입으로, 저희 법인에는 쟁쟁한 경력만큼 실력 있는 경남중고 동문이 6명이나 포진하게 되어, 특히 자랑스런 용마 가족이 부딪치게 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 해결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서슴없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마의 자부심에 조금도 흠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스 대표변호사 박영하 (경남고 25회) 올림

◇ 주요 학력 및 경력 ◇

- | | |
|---|---|
| <p>구성원 변호사 황성진 (경남중·고 19회)
 ■대검찰청 중수부 1,2과장·강력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서울북부·부산·수원지검 차장검사</p> | <p>구성원 변호사 김정학 (경남중·고 25회)
 ■부산·수원·서울서부·서울중앙·인천지법 부장판사</p> |
| <p>구성원 변호사 이종찬 (경남중·고 20회)
 ■부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서울북부 지방법원장</p> | <p>구성원 변호사 옥준원 (경남중·고 28회)
 ■부산동부·인천·수원·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p> |
| <p>구성원 변호사 박영하 (경남중·고 25회)
 ■대법원 재판연구관(행정), 사법연수원 교수(민사·행정), 서울남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p> | <p>구성원 변호사 최거훈 (경남중·고 30회)
 ■검사, 국회의원 비서실장, 부산시 등 고문변호사
 ■주요취급업무: 부동산/경매/형사 사건</p> |
- 사무실 : 서울 서초구 고우래로 6-6, 선경빌딩1,2층 (반포동) ■ 대표전화 : (02) 3487-5000

경남중고 총 졸업생 수 : 68,000여명

2018 총동창회 조직표

고문단	
9	정행권
11	안강태 명예회장
19	이용홍
21	오거돈
22	허범도
23	박대동
23	이병찬

자문단 20명 (연회비 100만원)							
11	오완수	18	서부원	20	박용덕	23	김영기
14	구자신	18	조성재	21	감창수	23	이부식
16	송규정	19	남진현	21	이재호	24	곽두희
17	최만식			21	최철수	24	노상우
18	김길제	19	이춘만	22	유재진	24	박극제
						24	원동희

총동창회	
회장(25회) 박송찬 (연회비 5000만원)	

감사	
28	엄재홍
29	박장인
30	윤인태

편집주간	
31	김성원

동창회보 편집위원 10명									
23	김기열	24	이상룡	29	김종명	29	최영식	24	박창호
31	배정우	34	조 선	36	정윤희	38	강병균	39	윤필욱

사무국	
사무총장	25 옥동훈
사무국장	36 신승렬

부회장단 46명 (연회비 100만원)									
25	서병수	29	손영보	30	정경목	31	오용환	38	김현민
26	박장현	29	오세용	30	최우철	31	홍성수	38	심재영
26	손영수	29	이문열	31	남기태	31	최효식	38	오희진
27	유영호	29	이승호	31	류명식	33	김법영	38	이종명
28	구영소	29	정 길	31	박종규	33	류장근	38	조석태
28	노영현	29	최영식	31	박종호	35	장인화	38	주영록
28	이원철	30	서하수	31	손영태	36	양호진	39	박근태
28	최강호	30	윤성덕	31	신수열	36	최승호	40	우영환
29	김용채	30	윤인태	31	오민일	37	유호섭	41	전삼록
						46	윤종서		

집행분과위원 14명 (연회비 200만원)					
상 임	25 송정규	총 무	35 정윤성		
재 정	29 김대욱	봉 사	36 박진용		
법률자문	29 박성철	문 화	38 윤경만		
홍 보	29 김종명	I T	38 김태호		
조 직	30 김현태	보건의료	39 박인석		
대의협력		직 능	40 한수열		
사 업	33 박명신	기 획	41 이양걸		
지 역	34 이진호				

운영위원 19명			
25	김진철	25	송
25	김중현	25	오
25	김길수	25	윤
25	김상수	25	이
25	김익수	25	이
25	박세철	25	장
25	손기천	25	제

지구 동창회									
남부산지구		중부산지구		사하지구	해운대지구		동래 금정지구		
회장	34 조 선	회장	25 임무홍	회장	36 최승호	회장	36 정윤희	회장	25 이상화
국장	40 한수열	국장	36 김종오	국장	38 신동훈	국장	38 김태호	국장	

기수 동기회									
3회	회 신현익	14회	회 진성태	25회	회 송정규	36회	회 양호진	47회	회 정 신
	국		국 박종문		국 여성조		국 이학수		국 성상용
4회	회 양종학	15회	회 손부홍	26회	회 김영호	37회	회 장원익	48회	회 피종태
	국 고체환		국 최원수		국 최의수		국 윤대환		국 김충우
5회	회 상기중	16회	회 손송방	27회	회 유영호	38회	회 오희진	49회	회 최진영
	국 임의택		국 김한선		국 백민호		국 신동훈		국 최유탄
6회	회 박용진	17회	회 박침홍	28회	회 김정현	39회	회 박근태	50회	회 백광선
	국		국 박재구		국 김치운		국 김종업		국 박종현
7회	회 김진홍	18회	회 서부원	29회	회 김철오	40회	회 배병준	51회	회 정윤석
	국 김광욱		국 박순정		국 김근덕		국 배영진		국 박보순
8회	회 조봉석	19회	회 남진현	30회	회 황철민	41회	회 전삼록	52회	회 김지운
	국		국 김규하		국 우홍제		국 백선민		국 김태현
9회	회 한동대	20회	회 허규판	31회	회 최효식	42회	회 박동식	53회	회
	국 최성욱		국 김세준		국 공종렬		국 정홍준		국
10회	회 서정철	21회	회 정영천	32회	회 이득우	43회	회 박형규	54회	회
	국		국 이재화		국 김태홍		국 이성준		국
11회	회 이 명	22회	회 장성덕	33회	회 김윤성	44회	회 안병규	55회	회
	국		국 조홍기		국 주기훈		국 우도균		국
12회	회 남기용	23회	회 전상대	34회	회 이진호	45회	회 권우일	56회	회
	국 감창수		국 김상영		국 목재명		국 김성준		국
13회	회 장영길	24회	회 노상우	35회	회 정윤성	46회	회 김백권	57회	회
	국		국 김인구		국 김세정		국 장운성		국

식능회		
떡경회	회장	16 송규정
	국장	33 박명진
용마회	회장	35 안종일
	국장	36 손광성
동대회	회장	25 송정규
	국장	43 장시호
언론인클럽	회장	34 조 선
	국장	36 정윤희
우리들의 만남	회장	30 김재철
	국장	42 김진호
세우회	회장	36 이성호
	국장	52 이도경
용건회	회장	26 이영학
	국장	41 김인수
기독교동문회	회장	26 이요섭
	국장	33 김대현
경남회	회장	21 정영천
	국장	28 서정환

임원
떡경회
산악
골프
풍마회
당구
합창
경이
경남중

용마 장학회	이사장	11	안강태
8	장혁표	23	이병찬
19	이용홍	27	김태우
19	남진현	29	박성철
21	오기돈	30	최우철
		30	서민석
		31	손영태
		33	박명진
		40	임태영

경발위	위원장	21	전지호	운영본부장	23	강실근
장학회	이사장	21	구본능	감사	29	이범익
덕형포럼	회장	26	박경재	운영위원장	26	윤수현
경삼회	회장	31	전희수	국장	39	신동관
늘봄회	회장	42	송지훈	국장	48	문수영

재경동창회
회장(24)이명규

재경 고문단

5	박송구	12	이규만	16	홍용찬	22	윤성복
9	김경희	13	이상택	17	배재욱	23	문규철
10	안우만	14	신준호	19	임우근		
11	김성규	15	천신일	21	진재호		

재경자문위원

20	이전철	23	이영재	24	김병수
21	최재권	24	변용준	24	전용우
22	최호림	24	정영덕	24	이종구
22	김진철	24	하영봉	24	주정규

특보단

형 정	24	안성모	재 정	24	변중석
홍 보	24	배석규	섭 외	24	권영기

부회장
25 문상진

감사
35 전성률
42 송지훈

사무총장
31 심재구

용마회보 편집위원
위원장 23 강상대

재경 부회장단(당연직-동기회장 38명)

24	이효구	31	전희수	38	배철호	45	진상영	52	허균형	선임부회장 4명
25	배대관	32	마승철	39	허종기	46	윤성환	54	조현일	
26	남인희	33	이해승	40	한승엽	47	정기주	55	유용식	
27	박영빈	34	양철용	41	류해일	48	문수영	56	김경진	
28	박형근	35	최석용	42	백영환	49	서인석	58	최종빈	
29	양길용	36	최연호	43	윤성욱	50	최석봉	59	이준혁	
30	김창근	37	안명도	44	정도영	51	황진혁			
25	김종윤	28	노현상	28	임익성	35	이영오			

연회비 100만원)

영근	25	조판재
양득	25	최치환
태석	25	한준석
영철	25	허택
대우	25	황호선
서훈		
영성		

해외지역동창회

미국	뉴욕	회장	
		총무	
	LA	회장	11 조동준
		총무	36 조성우
	시카고	회장	20 박영준
	총무	22 김정수	
	샌프란	회장	14 김철규
		총무	21 정갑식
	워싱턴	회장	22 김기공
		총무	29 박경배
일본		회장	29 박영수
뉴질랜드		회장	29 이왕봉
		부회장	32 왕중모
		감사	33 장재영
호주(시드니)		국장	41 김성혁
태국(방콕)		회장	9 우영철
		총무	30 강문철
베트남		회장	45 옥정민
중국		회장	22 박광용
		총무	39 정진훈
	산둥	회장	27 김병용
		총무	36 현만준
	북경	회장	23 김명철
	상하이	회장	34 박창주
캐나다(밴쿠버)		회장	23 김교철

재경지구동창회

강남 서초 지구	서부 지구	북부 지구
회장 20 구본홍	회장 25 김경환	회장 30 오심훈
국장 28 김민규	국장 36 하서철	국장 45 김성관

재경 직능회

팬클럽	경상회
경법회	일목회
보험회	경청회
덕양회	경정회
약우회	우리들의만남
의사회	건용회

재경 동호회

용마골프회	용마러너스
용마야구회	용마당구회
용마코리스	용마기우회
용마산악회	경남스틸러스
용마테니스	

기타 국내 지역동창회

거제	회장 25 임수호	인천	회장 28 박진주
	국장 40 김호철		국장 37 홍원석
구미	회장	전남	회장 33 예영찬
	국장 35 조권재		국장 43 김영선
김해	회장 28 최연삼	제주	회장 26 박재우
	국장 36 김용진		국장 33 이영현
대구	회장 22 김철현	진주	회장 28 문성룡
	국장 33 김철홍		국장
대전	회장 30 최병철	창원	회장 28 정영주
	국장 33 박태임		국장 34 조시형
성남	회장 24 미한국	천안 아산	회장 22 김창호
	국장 34 김지준		국장 29 윤석천
수원	회장 18 김두환	춘천	회장 27 송승철
	국장 34 김동건		국장 36 한영욱
양산	회장 31 박경수	충북	회장 27 이재덕
	국장		국장 37 이수재
울산	회장 24 김성득	동영	회장 27 김광철
	국장 33 이효성		국장 33 김기산
원주	회장 14 김중수	포항	회장 29 김인술
	국장 25 장재화		국장 34 김재찬

TEL:(051)245-7551~3 FAX:(051)245-7550

우편번호 48973

부산 중구 보수대로 82, 글든오피스텔 411호

고 총동창회 사무국

2018 총동창회 임원진 사진



회장 박종찬(25회) 감사 엄재홍(28회) 감사 윤인태(30회) 고문 정행권(9회) 고문 안강태(11회) 고문 이응홍(19회) 고문 오거돈(21회) 고문 허범도(22회)



고문 박대동(23회) 고문 이병찬(23회) 자문위원 오완수(11회) 자문위원 구자신(14회) 자문위원 송규정(16회) 자문위원 최만식(17회) 자문위원 김길제(18회) 자문위원 서부원(18회) 자문위원 조성재(18회) 자문위원 남진현(19회)



자문위원 박동덕(20회) 자문위원 강창수(21회) 자문위원 이재호(21회) 자문위원 최점수(21회) 자문위원 유재진(22회) 자문위원 김영기(23회) 자문위원 이부식(23회) 자문위원 광두희(24회) 자문위원 노상우(24회) 자문위원 박극재(24회)



자문위원 원동희(24회) 분과위원 송정규(25회) 분과위원 김대욱(29회) 분과위원 김종명(29회) 분과위원 박성철(29회) 분과위원 김현태(30회) 분과위원 박명진(33회) 분과위원 이진호(34회) 분과위원 정윤성(35회)



분과위원 박진용(36회) 분과위원 김태호(38회) 분과위원 윤경만(38회) 분과위원 박인석(39회) 분과위원 한수열(40회) 분과위원 이양결(41회) 운영위원 김길수(25회) 운영위원 김상수(25회) 운영위원 김익수(25회) 운영위원 김종현(25회)



운영위원 김진철(25회) 운영위원 박세철(25회) 운영위원 손기천(25회) 운영위원 송영근(25회) 운영위원 오양득(25회) 운영위원 윤태석(25회) 운영위원 이대우(25회) 운영위원 이명철(25회) 운영위원 장세훈(25회)



운영위원 제영성(25회) 운영위원 조판제(25회) 운영위원 최차환(25회) 운영위원 한준석(25회) 운영위원 허택(25회) 운영위원 황호선(25회) 부회장 서병수(25회) 부회장 박장현(26회) 부회장 손영수(26회) 부회장 유영로(27회)



부회장 구영소(28회) 부회장 노영현(28회) 부회장 이원철(28회) 부회장 최강호(28회) 부회장 김용채(29회) 부회장 오세용(29회) 부회장 이문열(29회) 부회장 이승호(29회) 부회장 정길(29회) 부회장 최영식(29회)



부회장 서하수(30회) 부회장 윤성덕(30회) 부회장 윤인태(30회) 부회장 정경목(30회) 부회장 최우철(30회) 부회장 남기태(31회) 부회장 류명석(31회) 부회장 박종규(31회) 부회장 박종호(31회) 부회장 손영태(31회)



부회장 신수열(31회) 부회장 오민일(31회) 부회장 오용환(31회) 부회장 최효식(31회) 부회장 홍성수(31회) 부회장 김법영(33회) 부회장 류장근(33회) 부회장 장인화(35회) 부회장 양호진(36회) 부회장 최승호(36회)



부회장 유호섭(37회) 부회장 김현민(38회) 부회장 심재영(38회) 부회장 오희진(38회) 부회장 이종명(38회) 부회장 조석태(38회) 부회장 주영록(38회) 부회장 박근태(39회) 부회장 우영환(40회) 부회장 전삼록(41회)



부회장 윤중서(46회) 편집주간 김성원(31회) 편집위원 박창호(24회) 편집위원 이상룡(24회) 편집위원 김중명(29회) 편집위원 최영식(29회) 편집위원 조 선(34회) 편집위원 정윤희(36회) 편집위원 강병균(38회) 편집위원 윤원욱(39회)



지구동창회

남부산지구 회장 조 선(34회) 남부산지구 국장 한수열(40회) 동래·금정지구 회장 이상화(25) 사하지구 회장 최승호(36회) 사하지구 국장 신동훈(38회) 중부산지구 회장 임우홍(25회) 중부산지구 국장 김종오(36회) 해운대지구 회장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 국장 김태호(38회)



직능회

덕경회 회장 송규정(16회) 덕경회 국장 박명진(33회) 용마회 회장 안종일(35회) 용마회 국장 손광성(36회) 등대회 회장 송정규(25회) 등대회 국장 장시호(43회) 언론인클럽 회장 조 선(34회) 언론인클럽 국장 정윤희(36회) 우리들의만남 회장 김재철(30회)



동호회

우리들의만남 국장 김진호(42회) 세우회 회장 이성호(36회) 세우회 국장 이도경(52회) 용건회 회장 이영학(26회) 용건회 국장 김인수(41회) 기독교문화 회장 이요섭(27회) 기독교문화 국장 김대현(33회) 경불회 회장 정영천(21회) 경불회 국장 서정환(28회)



덕형리그 회장 이문열(29회) 덕형리그 국장 임창섭(36회) 용마산악회 회장 김법영(33회) 용마산악회 국장 정재호(37회) 용마골프회 회장 서정승(17회) 용마골프회 국장 허홍욱(19회) 평마회(골프) 회장 박장현(26회) 당구회 회장 김종광(23회) 합창단장 장준식(20회) 합창단 국장 김병기(39회)



장학회

경야회 국장 백훈문(33회) 장학표(8회) 안강태(11회) 남진현(19회) 이용흠(19회) 오거돈(21회) 이병찬(23회) 김태우(27회) 박성철(29회)



서민석(30회) 최우철(30회) 손영태(31회) 박명진(33회) 임태영(40회) 사무국 사무총장 옥동훈(25회) 사무국장 신승렬(36회)

동창회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선배님들은 동창회의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 '3회~25회 동기회장 및 국장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남중고 동창회 3회~25회 동기회장 및 국장 상견례가 지난 4월 13일 오후 6시30분 롯데호텔 부산 42층 아스토클에서 열렸다.

이날 회장 및 국장단 참석자는 최고령인 4회 박홍기 동문(회장 대리 참석)을 비롯해 20명이 참석했다. 3회 회장과 국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했다.

총동창회 집행부에서는 박종찬 회장과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 옥동훈 사무총장(25회), 신승렬 사무국장(36회), 김태호 윤경만 본과위원장(38회) 등 6명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4개의 라운드 테이블에 각 기수별로 앉아서 식사와 환담을 나누었고 옥동훈 사무총장의 사회로 상견례가 시작됐다.

옥동훈 사무총장은 참석자 및 집행부 전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소개했다.

이어서 박종찬 회장은 "4회와 6회 선배님이 참석하셨는데, 앞에 '왕'자를 붙여 '왕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선배님들의 건강을 벤치마킹해 오랫동안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는 후배가 되고 싶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동창회 업무

“3~25회 동기회 회장 및 국장단 상견례 개최 졸업 50년 이상 동기회기 사무국이 관리해줘야”

를 파악해 본 결과, 경남중고 동창회가 선배와 후배가 절연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밝히고, "특히 40회 이후 기수들이 동창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후배들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창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돈(Money)이라며 동창회 예산에 대한 설명에 들어갔다.

박 회장은 "지난 이병찬 회장 당시 부회장 등 총동창회 임원들이 114명이었는데, 이들 중 36명만 연회비를 납부해 납부율이 30%에 그쳤다"며 "이러한 사실은 임원들이 명예만 가지고 의무는 내팽개친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동창회 사무국에서 회비 납부를 독촉하지 않은 면도 크다"고 전임 회장단을 질책했다.

또 "지난해에 동창회비로 7,200만원밖에 안 모였다. 그러다 보니 동창회 차원의 각종 모임

도 축소시키고 없애고 했다. 매년 개최하던 '용마의 밤' 행사도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그래서 이번 집행부에서는 매년 '용마의 밤'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특히 후배들이 동창회에 융합되지 못하고 많이 방황했는데 동창 중에 대통령도 당선되고 하니까 다시 묻쳐 지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느껴지는 시점에 새롭게 동창회가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으니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각종 '모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동창회가 적자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다며 '연회비 실명제'라는 타이틀을 공개했다.

박 회장은 "연회비 실명제는 임원들은 반드시 연회비를 내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40회 이하의 동기회 회장이 내는 연회비는 면제해 주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25회 동기생들 19명으로 구성된 운

영위원회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운영위원들은 총동창회장의 '아버지'로 회장을 대신해 각종 모임에 참석해 동문들을 격려하고 인사말을 하게된다고 역할을 소개했다.

그리고 "총동창회장이 내는 연회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다시 환원했다"며 "재정적으로 동창회 운영이 힘들다는 소문이 후배들에게 전달됐는지 1달만에 임원들이 내는 연회비가 모두 납부돼 1억5,300만원의 동창회 예산이 마련돼 우선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창회관 구입건과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건을 설명하고 마이크를 선배들에게 넘겼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4회 박홍기 동문은 사무국에 부탁을 하나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동문은 "각 기별 마다 동창회기가 있는데 동기들이 모두 나이가 들다 보니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서 동창회기를 반납하려고 한다. 반납을 받아달라"며 "졸업 50주년 이상 된 기수의 동창회기는 사무국에서 관리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15회 손부홍 회장(15회)은 "박종찬 회장이 아주 열성을 가지고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협조를 하기로 했다"며 "재정 동창회장이 총동창회 회장 밑에 기수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선배라서 여러가지 사항에서 밀리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 방법으로 총동창회장의 연임안을 내놓았다.

서부원 회장(18회)은 "사하구동창회에 40년째 참여하고 있고 사하구 사무총장도 10년 정도 해 동창회를 위해 많이 일을 해봐서 잘 안다"며 "동창회장이라는 자리는 참 힘든 자리니까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40년째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며 "부산시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결시켜 저렴하고 가성비 높은 건물을 동창회관으로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리더스경제신문에 게재된 동창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허위기사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설명하고 회의를 마쳤다.

“식어가는 동창회사랑... 터닝포인트 필요”

26~52회 동기회 회장 및 국장단 모임 롯데호텔서 열려

경남중고 26~52회 동기회장 및 국장 상견례가 지난 4월 6일 롯데호텔 부산 42층 아스토클에서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을 비롯해 동기회 회장 국장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박종찬 회장은 "후배기수로 내려가면서 동창회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필요한데, 이것만 잘 잡으면 후배들의 동창회에 대한 애정을 다시 가져 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선후배 기수 회장 및 국장을 이처럼 단체로 만난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인데 총동창회의 토대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회장은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경남중고 동창회가 전국 최고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엉망이다"며 "조직을 빨리 재건해야 한다. 지금까지 동창회장과 사무총장 등 집행부가 업무를 태만히 해 작금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행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동창회는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게 된다"며 "동기인 문재인 대통령과 서병수 부산시장 나라를 다스리고 부산을 다스리는데, 나는 동창회를 올바르게 만들겠다"고 힘 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박종찬 회장은 통제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동창회의 잘못된 점을 꼬집었다.

48회는 1103명이 졸업을 했는데 동창회보 구독료는 1명밖에 내지 않았다며 이것은 48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회장과 사무총장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총동창회 임원이 114명인데 이중 36명만 연회비를 납부했다고도 했다.

그래서 동창회가 예산이 없어 연말에 송년회를 겸해서 열리는 '용마의 밤' 행사를 격년제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전임 집행부는 돈을 거두어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돈을 가지고 맞추어서



지난 4월 6일 롯데호텔 부산 42층 아스토클에서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을 비롯해 동기회 회장 국장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박 회장은 "오늘이 선후배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중요한 자리"라며 "취미, 직능, 지역 동호회에서도 선후배를 연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동창회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동창회보 구독료를 잘내도록 동기들에게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다음으로 박 회장은 동창회관을 꼭 구입해 선·후배들이 즐겨찾는 동창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동창회보 활성화 문제와 기별야구대회, 야구부 지원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날 모임은 '다시 시작이다'라는 간배사로 막을 내렸다.

“동창회관 구입 기금 전국 동문 상대로 모금운동 펼칠 터”

고문단 및 자문단 모임… “동창회밴드 활성화로 선후배 동정 한 눈에 알아”



총동창회 고문단 및 자문단 모임이 지난 4월 24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려 동창회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안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고문단 및 자문단 모임’이 지난 4월 24일 오후 6시30 중식당인 롯데호텔 부산 43층 도림에서 박종찬 총동창회장의 요청으로 열렸다.

먼저 옥동훈 사무총장이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이번 모임의 취지를 소개하고 이어서 안강태 명예회장(11회)의 모두발언이 이어졌다.

안 회장은 “고문단 및 자문단 회의는 회장단이 주관해 앞으로 동창회가 해나갈 일을 설명하거나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그 목적이 동창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있으니 좋은 방향을 말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종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직전 총동창회 사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통장계좌에 대해 언급했다.

박 회장은 “총동창회 명의의 계좌가 3가지

가 있는데 전용이 되면 안되는데 1억5,100만 원 정도가 전용이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집행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리에 참석한 고문 및 자문위원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창회관 구입 기금 모금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동창회관 구입 기금 모금 초창기인데 특정 동문이 기부하는 액수를 보고 얼마를 낼지 결정하겠다는 동문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그 선배가 기부금을 내면 모든 고리가 잘 풀릴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동창회관 구입은 전 동문의 염원이므로 부산과 재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동문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펼치겠다”고 모금계획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번 집행부 97명 전원이 연회비를 완납해 동창회의 재정상태가 어느정도 나아졌다”고 소개하면서 “다음 집행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박 회장은 동창회 모임마다 항상 주장하는 동창회보 구독료 문제를 언급했다.

“동창회의 승부는 동창회보 구독료를 얼마나 거두느냐에 있다”며 “4,000명을 목표로 하는데 4월24일 현재 1,271명”이라고 납부자 수를 거론했다.

박 회장은 또,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더 잘 해 주고 한 번 더 보답아서 끌어 모아야 한다”며 “총동창회 밴드를 만들었는데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어 이것을 통해 선후배들의 동정을 알 수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선배님들도 밴드에 가입해 동창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은 “총동창회 지금 전용은 박대동 회장과 이병찬 회장 시절에 이루어졌다”며 “이것을 문제를 삼아야 하느냐, 그냥 물어두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은 하나 개인적으로 그냥 그냥 넘어가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박종찬 회장도 같은 생각”이라며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곽두희 자문위원(24회)은 “동창회보 구독료는 사실상 동창회비라고 보면 된다”며 “동창회보가 아니면 동창들간의 소통 채널이 없기때문에 동창회보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해마다 동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창회보 납부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해마다 줄어든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재진 자문위원(22회)은 “재경지역 동창회와 동창회보 통합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는데, 모교가 부산에 있기때문에 총동창회가 회보 발행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동창회보에 광고를 좀 게재해 광고비로 동창회보 발행 비용을 충당하고 회보구독료는 동창회 회비에 보태자”고 제안했다.

명예 자문위원인 박극제 서구청장(24회)은 “서구신문을 만들어 보니 자기 얼굴이 신문에 나오면 신문을 가져 가더라”며 “동창회보도 그런 식으로 많은 동문들의 동정이나 사진이 실리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동창회보 편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강창수 자문위원(21회)은 “역대 어느 회장보다 행동하는 회장으로 파워풀하게 움직이니까 기대가 크다”고 운을 뗀 후 “동창회관을 구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된 과정과 20여원을 모금해 동창회관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종찬 회장은 “동창회관 구입 이야기는 전임 이병찬 회장 때 나왔는데 총동창회에 있는 기금 30여원으로 건물을 알아 보니까 답이 안나와 기금을 더 모아서 구입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동창회관 구입을 생각하게 됐고 또 후배들을 위해 구입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질문에 답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외에도 총동창회의 발전에 관한 여러가지 안건이 나왔다.

회의 마지막에 안강태 명예회장이 모든 것을 회장에게 맡기고 우리는 뒤에서 힘껏 밀어 주자며 박수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

용마장학회… “예전 명성 찾는데 일조”



‘용마장학회 임원상견례’가 지난 3월28일 오후 6시30분 롯데호텔 부산 43층 도림에서 열렸다.

‘용마장학회’ 임원 상견례가 지난 3월 28일 오후 6시30분 롯데호텔 부산 43층에 있는 중식당 ‘도림’에서 열렸다.

용마장학회 이사인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상견례에는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과 옥동훈 사무총장 등 총동창회 집행부와 안강태 용마장학회 이사장, 장혁표(8회) 전 부산대 총장 등 용마장학회 이사 등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남진현 이사는 먼저 “용마장학회 이사 중 일부 사퇴한 분도 있고 신입 이사도 새로 임명돼

상견례 겸 용마장학회 발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모임을 가지게 됐다”며 모임의 성격을 밝혔다.

그러면서 “용마장학회 임원 모임을 일년에 4회정도 분기별로 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며 새로 임명된 신입이사를 소개했다.

남진현(19회), 오거돈(21회), 이병찬(23회), 최우철(30회), 손영태(31회) 동문 등 신입 이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

이어서 안강태 용마장학회 이사장(11회)은 “오늘 장학회를 위해 좋은 말 많이 나누면서 식

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모임을 가지게 됐다”며 “작년에는 장학회 임원들이 모여서 의논한 적이 없어 미안하다. 앞으로 경고와 장학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이용홍 이사(19회)는 “안강태 이사장님이 건강과 사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학회를 잘 이끌어 왔다”며 “장학회 이사들이 아주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이 기쁘다. 장학회가 모교나 동문회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그리고 그는 “학교 70년사와 80년사, 역사관이 없는 학교는 경남고 뿐”이라며 “박종찬 회장이 동창회관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산고, 동래고, 부산상고 등 부산지역 동창회장단 모임에 가면 체면이 설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찬 이사(23회)는 “동창회 발전기금을 모을 때 용마장학회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했다”며 “용마장학회에 남아있는 적립금이 학교와 장학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종찬 회장(25회)은 “은행이자가 적어 적립된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동창회관을 구입하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이 장학금으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고 동창회관 구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동창회관 구입 자금에 대해 박 회장은 재정상 여유가 있는 동문들을 상대로 회관 구입의 당위성을 설명해 기금을 기부받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동창회관의 유무는 후배들에게 동창이라는 의식에 굉장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며 “동창회관이 있으면 동창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다”고 장학회 이사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서 박성철 이사(29회)는 “용마장학회 이사로서 이번이 중임이지만 모임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동창회관 구입은 법률적으로 용마장학회 명의로 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도우겠다”고 변호사답게 법률적 지문을 약속했다.

최우철 이사(30회)와 서민석 이사(30회)·임태영 이사(40회)도 경남중고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약속보다 늦게 모임에 참석한 장혁표 전 부산대 총장은 “이렇게 자주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온다”며 “동창회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만큼 모두 잘 도와주자”고 말했다.

안강태 이사장의 ‘경고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과 함께 용마장학회 이사회 임원 상견례가 마감됐다.

이날 오거돈 전장관(21회)과 손영태 이사(31회)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나이트 클럽’으로 변한 ‘해피니스’ 해운대지구동창회

신임회장에 정윤희 부산교통방송 국장(36회) 선출

경남중고 해운대지구동창회 정기총회 겸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 해운대구 마리나센터 4층 ‘블루키친’ 부패에서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태호 해운대지구동창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는 먼저 진호준 전임 회장(35회)의 이임사로 시작했다.

진호준 회장은 “ 그동안 해운대지구동창회를 사랑해준 동문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며 “후임 정윤희 회장에게도 많은 힘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호준 회장이 정윤희 회장에게 해운대지구 동창회 회기를 넘겨주었다.

이어서 정윤희 신임회장(36회)은 인사말에서 “오늘 해운대지구동창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사를 표하고 싶다”고 인사하고 “동창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사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출세도 잘한다”며 동창회 참가를 독려했다.

그리고 해운대지구동창회를 더욱 사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초청인사로 참석한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은 “많은 동문들이 도와줘서 앞으로 동창회가 활기차고 잘될 것 같다”며 “동창회관 구입에 올인해, 반드시 회관을 구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동창회는 결국 선후배간의 모임을 활성화하는데 관건이 있다”며 “수직으로, 수평으로 모임을 많이 가지는 등 힘이 닿는대로 최선을 다할테니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서병수 부산시장(25회)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늦게 와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경남중고 해운대 동창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한다. 전임 진호준 회장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신임 정윤희 회장이 더 많은 발전을 이끌어 거라 생각한다”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해운대지구동창회는 아주 인연이 깊다”며 “해운대지구동창회가 처음 결성될 시



해운대구 마리나 센터 4층 ‘블루키친’ 부패에서 열린 ‘해운대지구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동문들이 교가제창을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기에는 신시가지가 생기지 않았고, 물론 마린 시티, 센텀도 없었다. 그래서 20여명이 출석해서 속닥하게 재미있게 했다”고 초기 해운대지구동창회 모습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병수 시장은 “오거돈 선배(21회)와 다시 리턴매치를 하게 돼 민망하다”며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1부가 끝나고 흥겨운 2부가 김경진 동문(44회)의 사회로 시작했다.

김경진 동문은 각 기수별로 무대 위로 초청해 자기소개를 하게 하고, 대표자가 노래 한 곡을 부르도록 했다.

특히 박종찬 회장의 ‘꽃을 든 남자’와 배대결 동문(13회)의 ‘흙에 살리라’ 등이 참석 동문들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았다.

노래가 끝나고 행운권 추첨이 있는 후 응원가와 후라경고를 외치고 총회를 폐막했다.

◇협찬: 남진현(19회) 30만원 + 회의 식대 박종찬(25회) 53만원 최영식(29회) 30만원 + 회



해운대지구동창회 정기총회 행사 2부에서 남녀혼성 4인조 그룹 ‘해피니스’가 출연해 참석자들과 함께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의 식대 박영홍(30회) 5만원 배정우(31회) 10만원 김법영(33회) 30만원 김두섭(34회) 30만원 이상엽(34회) 20만원 김중근(34회) 13만원 공진식(36회) 30만원 박진용(36회) 30만원 윤경준(36회) 20만원 주영록(38회) 100만원 김진호(42회) 5만원 + 회의 식대 사하지구동창회 30만원 중부산지구동창회 20만원 차영일

(13회) 남근 및 성인잡지 5권 유재진(22회) 벤츠모자 50개 유명석(31회) 와이셔츠 20장 김관용(36회) 보나주르화장품 150개 안재익(36회) 임플란트 시술권 2장 박진용(36회) 안과 진찰권 150매 윤경준(36회) 성형외과 할인권 150매



경남중고 31회 동기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8일 초량 노블리아 부패에서 열려 최효식 동기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경남중고 31회 동기회 집행부 1차 모임이 지난 5월 3일 민락동 수변공원에 있는 ‘용마릿집’에서 열렸다.

이날 모두 16명의 동기가 참석해 동기회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많은 논의를 했다.

이날 토의된 내용은 해마다 5월에 개최되던 ‘어울림한마당행사’는 새로운 집행부의 구성이 늦어져 준비시간 부족으로 오는 10월에 열기로 합의를 했다.

또 연회비 및 모아놓은 기금 7천여만원에

31회 동기회장에 최효식 동문 선출

수석부위원장 서수교, 감사 허일헌, 사무국장 공종렬 임명

대해 기금을 각지회에 분배하여 사용하지는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기금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연회비는 기존 방법 그대로 납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문제들은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한편 경남 중고 31회 동기회는 지난 3월 28일 오후 7시 동구 초량동 노블리아 부패에서 2018년도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병태 임시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모두 30명의 동기가 참석해 참석 동기들의 만장일치로 최효식 동기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감사에는 허일헌 동기가, 사무국장에는 공종렬 동기가 지명됐다.

수석부회장에는 서수교 동기, 부회장에 김학현, 박석두, 박종호, 신상하, 정주영, 최상규 동기가 임명됐다.

그리고 옹호동 접자리에 있는 P&O에서 뒤풀이가 열렸다.

뒤풀이 장소에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남진현 총동창회 지문위원장(19회), 옥동훈 사무총장 등 총동창회 집행부가 참석해 동창회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날 뒤풀이 비용은 최효식 신임회장이 모두 부담하였으며 남기태동기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협찬했고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은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참석자 = 공종렬, 김성규, 김윤택, 김태근, 김학현, 김효연, 남기태, 박종규, 박종호, 배정우, 서규영, 서동근, 서수교, 손정수, 송재용, 심재현, 안용모, 이기범, 이민재, 이병태, 임종태, 정용식, 정인화, 조영기, 천장호, 최상규, 최주홍, 최효식, 최해영, 허일헌

사하지구동창회 신임 회장에 최승호 동문(36회) 선출

“현란한 역사 앞세우기보다 유대강화가 절실하다”



사하지구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3월 22일 장림 홈플러스 5층 '프리미스 웨딩뷔페'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옥 편집위원(30회))

“2018년도 사하지구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이 지난 3월 22일 오후 6시 30분 장림 홈플러스 5층 '프리미스 웨딩뷔페'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는 임창섭 사무국장(36회)의 사회로 시작됐다.

이어서 사하지구동창회장기가 입장하고 진양호 사하지구동창회 회장(34회)의 개회선언과 함께 내빈소개가 진행됐다.

이날 내빈으로는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과 남진현 자문위원장, 옥동훈 사무총장, 서병수 부산시장, 조경태 국회의원(40회) 그리고 동문이 아닌 부산고 출신의 이경훈 사하구청장이 소개됐다.

진양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동문 상호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반목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동창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며 “개인적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동창회에 전념하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린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류명석 회장(31회)이 사하지구동창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사하동창회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며 “회장직을 수행하는 4년동안 감사드릴 분이 많다”고 일일이 거명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최승호 신임회장에게 사하지구동창회 회기를 전달했다.

최승호 회장(36회)은 취임사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경남고에는 역사는 넘쳐 흐르는데 전통이 보이지 않고, 독선이 넘쳐 나고 유대가 보이지 않는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경남중고 동창회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는 현란한 역사를 앞세우기 보다 유대를 강화해야 하고, 고민하면서 서로 진지하게 상대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종찬 회장은 축사에서 “동창회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며 “겉모습은 화려하나 내부는 엉망진창이다. 재정적으로 힘들다. 몇년동안 적자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동창회 실상을 알렸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100년사를 편찬할 기회를 주겠다”며 “서울에서 80년사를 주도로 하고 있는데 이 것은 부산이 재정적으로 열악해 할 수 없어서 그렇다. 100년사는 총동창회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병수 부산시장(25회)은 “사하지구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전임회장이 회장직을 4년동안 수행한다고 고생했고 신임회장도 앞으로 잘 할거라 생각한다. 경남중고 동창회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더 좋은 동창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병수 시장은 인사말 도중 오거돈 전 장관(21회)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보고 오거돈 전 장관에게 인사를 한 후 “오 전 장관과 동문이자 집안끼리도 잘 안다”며 “동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거돈 전장관은 “사하지구동창회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하지구동창회만큼 잘하는 동창회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차켜세우며 “진양호의 시대가 가고 최승호의 시대가 열렸다. 모든 것은 순환이 돼야 한다”고 의미있는 인사를 했다.

최승호 회장 취임사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상대를 모르면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대의 이름을 안다고 해도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상대를 안다’고 하는 말은 빈말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상대를 제대로 안다고 해도/ 상대를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상대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창회, 동문들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무리 같은 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여도 상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관계라면, 심지어 상대를 무시하고, 남보다 못한 비난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서로를 동문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경남고등학교’란 말만 들어가면/ 우리는 앞, 뒤를 제지 아니 하고, 이미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 양 행동을 합니다.

어떤 때는 생각을 강요하고, 어떤 때는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좋은 전통이었다해도. 솔직히 지금은/ 그것을 좋은 전통이라고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문들 간에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공감할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동창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남고등학교라고 늘 말을 합니다.

대통령을 두 분이나 배출하고, 국회의장

과 대법원장을 배출한 경남고등학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학교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문 학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동문을 배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우리 경고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역사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곧 우리들 각자가 몸으로 익히고 머리와 가슴에 새겨야 할 전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고등학교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역사를 앞세우고/ 정작 우리가 전승해야 할 전통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그 가치를 분별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절~ / 선배님들께서 이룩한 성과나 실적, 동문들의 출세도 당연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세워 역사를 이야기하는 동문들은 많아도/ 전통에 대하여 말하는 분들이 없다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경남고등학교에 역사는 넘쳐 흐르는데, 전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통이 보이지 않으니 독선이 넘쳐나고/ 정작 동문들 간에 있어야 할 유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경남고등학교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현란한 역사보다도 오히려 전통을 앞세워 내실을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문들 각자의 가슴이 얼마나 활기차고 뜨거운지, 동문들 간에/ 꿈과 미래를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동문들 간에 소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면서 서로를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동창회가 먼저, 동문여러분의 빛깔과 향기에 일맞은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겠습니다.

모두들~ 부디 가슴을 열어 그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또한, 기꺼이 꽃이 되어 성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부산고를 나왔지만 경남중고 동창회에 끈끈한 정을 많이 느낀다”며 “전임회장에 이어 신임 회장도 잘할거라고 생각한다”고 축하의 말을 했다.

최승호 회장이 이환용 경남고 야구부장(32회)에게 야구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서 축하케익 커팅과 경품추첨이 있는 후 회의가 폐막됐다.

“용기와 열정 가져야 성공할 수 있어”

송규정 자문위원 초대, 분과위원회의 열려

경남중고 총동창회 분과위원회 모임이 4월 11일 오후 6시30분 해운대 동백섬 입구 더베이 101 2층 대도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송규정 원스틸 회장(16회)이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는 박종찬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규정 총동창회 자문위원은 인사말에서 “선배가수들이 동창회에 참가하기 쉽지 않다”고 운을 떼 뒤 “후배들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모임의 의미를 밝혔다.

그리고 송 자문위원은 남진현 총동창회 자문위원장의 오토바이 면허증 취득을 대화의 장에 올렸다.

송 자문위원은 “남 위원장에게 오토바이를

탈 것을 권했는데 오토바이 면허 시험에 4수 만에 합격했다”며 “남들은 다 위험하고 힘들다고 했지만 시도하니까 이루어졌다. 후배들도 건강도 좋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에 용기나 열정을 가지게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열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잔이 다 차지 않았는데 나머지 부분을 열정으로 채우겠다는 의미로 건배사로 ‘채우자’를 외치면 ‘열정’으로 답해 달라며 건배사를 했다.

이어서 박종찬 회장은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송규정 선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인사를 한 뒤 “우연히 동창회장을 할 기회가 와서 맡았는데 맡은 이상 열정적으로 동



총동창회 분과위원회 모임이 지난 4월 11일 해운대 동백섬 입구 더베이101 2층 대도식당에서 송규정 회장의 초대로 열렸다.

창회를 운영 할 예정”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그리고 그는 “동창회관을 구입해 역사관을 만들어 선배들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유물들을 받아서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찬 회장은 인사말이 끝난 후 모임에 참석한 집행위원장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집행위원장들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와 자기 소개를 했다.

식사자리가 이어지고 송규정 자문위원의 클로징 맨트로 모임이 끝났다.

이날 모임은 송규정 자문위원이 식대 모두를 부담했고 안동소주 3병도 협찬했다.

모임이 끝나고 박종찬 회장과 집행위원장들은 인근에 있는 웨스틴 조선비치 호텔 ‘오क्स’로 자리를 옮겨 동창회의 현안과 미래에 대한 대화를 이어 나갔다.

“경남고 교정에 난립한 조형물 정리 시급”

집행부, 이희문 전 경남고 교장과의 만남

어버이 날인 지난 5월8일 낮 12시 해운대 청사포에 위치한 전망 좋고 유서깊은 ‘금오횃집’에서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집행부 및 임원진과 원로선배인 이희문 전 경남고등학교 교장(6회)과의 만남이 있었다.

이날 이희문 전 경남고 교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창회 사무실은 김근준 회장 때 구입한 것이라 아주 오래되어서 많이 낡았을 것”이라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모교가 있는 곳이 동창회의 중심”이라며 “경남중고 80년사 발간도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희문 교장은 모교인 경남고 교감으로 부임하지마자 동창들의 도움으로 정독실을 만들어 35,36,37,38회 동문들을 서울대 등 명문대에 많이 진학시킨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그는 “모교에 자습실을 만들려고 당시 서울 시장이던 정상천 선배에게 부탁해 해결한 적이 있다”며 “정상천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36회는 서울대만 56명이 갔다고 한다.

그러자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은 지금부터 6-7년 전쯤 24회 김종석 동문이 경남고 교장으로 재직할 때 정독실을 만들어 주었다”며 “책걸상이 없다고 해서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1,300만 정도의 돈을 모아 해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습실 이야기가 끝나자 이희문 교장은 자

연스래 현재 경남고 교정에 있는 용마상이 건립되게 된 비화를 소개했다.

이희문 교장에 따르면 원래 졸업생들은 졸업할 때 일정 금액을 학교에 내었는데 35회가 졸업할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전두환이 일체의 집비를 거두지 말라고 해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35회 졸업생들이 머리를 짜서 용마상을 만들 계획을 만들었다고 했다.

35회 졸업생들은 용마상을 만들기 위해 먼저 ‘용마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각 반반장은 위원장을, 반원들은 위원으로 임명해 돈을 각출, 용마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용마상이 앉아 있는 판은 그 유명한 김청경 조각가가 만들었고 용마상은 공예고등학교에 부탁해서 완성했다고 한다.

그리고 용마상에 들어갈 고가를 적을 서에가가 필요했는데 그 유명한 시암 배길기 선생을 찾아가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희문 교장은 “이미 정동식 재경회장과 김경희 선배가 시암 선생을 찾아가 고가를 적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였다”며 “그래서 이희문 교장의 부인과 시암선생의 부인이 친구가 있어서 부부가 함께 서울로 올라가 그 멋진 시암선생의 서체로 고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면에서 용마상에 적힌 고가는 보물이라고 이희문 교장은 말했다.

그리고 역시 경남고 교정에 있는 용마상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지난 5월8일 낮 12시 해운대 청사포에 위치한 전망 좋고 유서깊은 ‘금오횃집’에서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집행부 및 임원진과 원로선배인 이희문 전 경남고등학교 교장(6회)과의 만남이 있었다.

그리고 이희문 교장은 17회 동기들이 흠커밍 테이블 하면서 고래상을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시 김준영 동기회장이 직접 부탁을 해 결국 김청경 작가가 만들어서 교정에 세웠다고도 했다.

그에 따르면 김청경 작가의 작품은 부산에 3개밖에 없는데 경남고 교정에 2개가 있다는 것이다.

경남고 교정에 있는 또 다른 용마상은 14회 졸업생들이 만들었는데 작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희문 교장은 “교내에 난립돼 있는 각종 조형물들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희문 교장은 “송두호 동문(3회)이

동창회장이던 시절 초량 뒷길 재향군인회관 건물을 동창회관으로 만들려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시 대동령이던 전두환에게 직보돼 정권의 실세로부터 제지를 당해 계약을 해지, 지금까지 동창회관이 없다”고 알려지지 않았던 동창회관 관련 비사를 소개했다.

이날 모임 말미에 박종찬 회장이 이희문 전 교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고 이명철 운영위원(25회)이 식대 모두를 부담했다.

◇참석자 : 박종찬회장,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 이명철 운영위원, 옥동훈 사무총장(25회), 김성원 동창회보 편집주간(31회), 신승렬 사무국장, 정은희 해운대지구동창회 회장(36회), 김태호 IT분과위원장(38회)



故 이태석 신부 기념음악회에 참가한 ‘용마코러스’ 와 동문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제 7회 고 이태석 신부(35회) 기념음악회’가 지난 5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음악회에 ‘용마코러스’가 특별출연했다.

부산에서 27명 서울에서 23명이 출연해 ‘Bridge over troubled water’와 ‘벧노래’ 이태석

제7회故 이태석 신부 기념 음악회 ‘용마코러스’ 환상의 협연 펼쳐

이태석 작곡 ‘아리랑 열 두 고개’ 감동의 하모니

신부가 직접 작사 작곡한 ‘아리랑열두고개’ 등 3곡을 불렀다.

특히 ‘아리랑 열두고개’는 마에스트로 오충근의 지휘로 소프라노 박은주 등과 협연했다.

한편 이날 음악회에는 박종찬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옥동훈 사무총장 등 동문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음악회가 끝난 뒤 열린 뒷풀이 장소에서 “이태석신부는 같은 동문인데 기념사업행사에 총동창회에서 너무 소홀했다”며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임기 중에는 관심을 확실히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클래식공연회는 자주 못다녔지만 합창의 힘을 처음으로 느꼈다”며 “용마코러스팀이 너무 잘한다. 매년 정례화해서 찬조출연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회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기념음악회에 참가한 동문들은 음악회가 열리기 앞서 문화회관 인근 식당에서 박종찬 회장의 초대로 저녁 식사를 했다.

◇용마합창단 명단 부산용마코러스 (단장: 장춘식)

테너1: 장춘식(20회), 김용석(28회), 최상규(31회), 박근태(39회), 노재훈(50회)

테너2: 안창범(18회), 손상수(21회), 안승진(39회), 박형규(43회), 안병규(44회), 최현덕(44회), 박병규(50회), 김현운(58회)

베이스1: 김태근 정용식(31회), 손수범(35회), 김병기(39회), 문형준(44회), 최홍호(50회), 김영권(51회)

베이스2: 노덕현(19회), 고영호(31회), 조성빈(47회), 김석훈(50회)

재경 용마코러스 (단장: 최동완)

테너1: 윤우성(20회), 배기주(23회), 권영기 안형모(24회), 황진혁(51회)

테너2: 이영정(15회), 배재욱(17회), 김형기(20회), 문병대(24회), 김건일(23회), 오성익(26회), 김재주(28회), 이재훈(39회)

바리톤: 최동완(21회), 이승무(26회), 김홍근(27회), 황지중(28회), 김영일(30회)

베이스: 허 훈(13회), 박원수 신성욱(23회), 김광우(29회), 허균형(52회)

지역 동창회 소식



김해지역동창회 4월 월례회가 김해여중 옆 한식당 '가원'에서 열렸다.

'끈끈한 정' 김해지역동창회 월례회 열려

가장 끈끈한 정을 자랑하는 '경남 중고 김해 동창회' 4월 월례회가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 경남 김해시 김해여중 옆 한식당인 '가원'에서 총동창회 및 김해지역동창회 집행부, 김해 지역 동문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용진 김해지역 동창회 사무국장(36회)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월례회에서 최연삼 회장(28회)은 인사말에서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멀리서 김해지역 동창회를 격려해 주기 위해 방문한 박종찬 회장과 남진현 총동창회 자문위원장, 옥동훈 사무총장, 김성원 동창회보 편집주간에게 감사하다"며 "박명진 동문(33회)의 김해 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축하한다"고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현재 김해시 시의원으로 경남김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이광희 동문(30회)을 소개했다.

이어서 가수별로 참석자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맨처음 인사를 한, 참석자 중 최고참인 강진평 동문(10회)은 "최근 사별을 하고 나니 아무리 악처라도 지식보다 좋더라"며 "부부가 함께 살 때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서로를 위하는 정신으로 화합하는 가정을 이루어 해로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박종찬 회장은 "동창회에 후배 기수들이 많이 처져 있어 선배들이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것도 특히 집행부에서 챙겨야 한다"며 "막강한 25회 동기들의 기를 받아 동창회의 부흥을 이루겠다"고 힘 주어 말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했다. 박 회장은 "선후배의 연결고리는 동창회보"라며 "동창회보를 활성화 시켜야 선후배 간의 유대가 강화된다. 동창회보 활성화를 위한 키포인트가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다. 동창회를 잘 이

끌어 갈테니 구독료를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동창회관을 구입해 역사관과 휴게실을 만들어 동문들이 즐겁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예산문제로 격년제로 하던 '용마의 밤'을 매년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광희 동문은 "1991년 30대 중반에 김해시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가 집을 하나 날려 먹은 후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최근 1년동안 김해시 시의원을 하면서 체험해보니까 민의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민의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김해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된 박명진 동문(33회)은 "경남고를 나오게 내 인생에 아

주 도움이 많이 됐다"고 운을 펴며 "경남중고의 기운을 쬐는 시절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니까 동창회가 큰 기운을 주는데 그 기운을 받아 김해시 상공회의소 회장이 됐고, 해운대비치엔 리조트도 인수하는 등 많은 좋은 일이 있었다"며 선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모임은 최태환 동문(13회)의 건배사로 마무리했다.

박종찬 총동창회회장이 금일봉을 전달했고, 신수열 동문(31회)이 덴마크리는 상호의 주점에서 2차 잔조를 했다.



지난 4월 1일 경남 김해시 내동 1143-3 스카이빌딩 6층 에이스 당구장에서 열렸다.

김해지역 당구대회 이상은 동문(23회) 3전1기 우승

'제3회 경남중고 김해지역동창회 당구대회'가 지난 4월 1일 경남 김해시 내동 1143-3 스카이빌딩 6층 에이스 당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모두 12명의 동문이 출전한 가운데 이상은 동문(23회)이 우승을 했다. 준우승은 손옥명 동문(40회), 3위는 김한교 동문(36회), 4위는 박법규 동문(33회)이 각각 차지했다.

이상은 동문은 1회대회와 2회대회에 이어 3번째 도전만에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날 박광수(29회) 황성철(31회) 배종찬(32회) 노태진(34회) 동문이 꺾리리로 참석해 시합을 지켜 봤다.

"베트남 거주 동문들 연락 주세요"



호치민 동창회 동문들이 모임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39회 정진훈입니다.

저는 경남중고 재호치민동창회에서 총무를 담당하고 있어 총동창회 선후배님 여러분께 경남중고 재호치민동창회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재호치민동창회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박철완 동문(20회, 초대회장, 현 고문)을 필두로 이석호 동문(25회, 동창회장), 김성준 동문(33회, 부회장)의 후원아래 2013년 12월 첫 모임이후 2014년 3월 10명의 동문으로 정식출범하여 지금까지 매월 정기모임 또는 번개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15회 박준원동문 이하 54회 이성현동문까지 총 22명의 동문들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호치민동창회에 참여를 원하시면 총무인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2014년 이후 총동창회에서 보내주시는 회보를 통해 동문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밴드를 통해 지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치민 동창회 회원> 박준원(15회) 박철완(20회) 한준수(21회) 이석호(25회) 조일래(30회) 최원석(32회) 김성준(33회) 옥종훈(33회) 안려용(34회) 윤종현(35회) 이한호(36회) 조정민(37회) 변기열 김태원(38회) 정진훈 최복수(39회) 김영수(40회) 신창훈(41회) 박수진(44회) 안용성(47회) 이정훈(52회) 이성현(54회)

창원지역동창회 동문 가족 부산나들이



창원지역동창회 가족동반 자유회가 지난 4월 29일 부산일대에서 열렸다.

'경남중고 창원지역 동창회 가족동반 자유회'가 지난 4월 29일 해운대 달맞이 고개-문탠로드-미포철길-태종대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자유회에는 정영주 회장(28회)과 조시형 사무국장(34회) 등 동문과 동문 가족 53명이 참석했다.

창원지역 동창회 가족들이 달맞이 고개에 도착하자 김성원 동창회보 편집주간(31회)과 신승렬 총동창회 사무국장, 정윤희 해운대지구동창회 회장(36회) 윤원욱 편집위원(39회)이 영접을 하고 서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박종찬 회장을 대신해 빵을 전달했다.

태종대에서는 이병태 총동창회 대외분과위원장(31회)이 동문 일행을 반갑게 맞이 해

일정의 일부를 함께 소화했다.

◇참석자 : 송인창(17회) 백종무 합진복(19회) 강경구 하갑준(21회) 김수용 최진우(24회) 김정욱 김호용 한원우(26회) 정영주 정혜영(28회) 강신종 류홍영(33회) 김용백 옥재명 조시형(34회) 박승준 최용석(40회)

◇부부동반 참석자 : 강인섭(18회) 김현 김재근 심영섭 정승수(19회) 김현기 심광섭 여환부 조호제(21회) 강상대 서향용(22회) 고용석(23회) 김태홍 이 수(24회) 윤정욱(32회) 공진우 김계주(33회)

지역동창회·동기회·동호회

7회 = 정기총회

지난 4월 23일 서면 롯데백화점 내 TGI 프라이데이에서 11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가 있었다. 김진홍(부산고려병원 명예 이사장)동기가 회장, 김광욱 전 동기회장은 국장으로 선출되었다.

17회 = 봄 아우회



지난 4월 21일 30여명의 동기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 수원지(오륜대)에서 봄아우회가 있었다.

18회 = 정기총회



지난 2월 28일에서 3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서면 동기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서부원(한솔공인중개사 대표) 동기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터존뷔페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지난 5월 29일 주암계곡에서 60여명의 동기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봄아우회를 개최하였다.

20회 = 정기총회



지난 3월 16일 터존뷔페에서 3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있었다. 신임 동기회장에 허규관(삼성산업 회장)이 선출되었다.

23회=당구회



23회 당구대회가 지난 3월31일 금정구 장전동 Jm당구장에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승자조에서는 황원태 동기가 우승을 차지했고, 김기열 동기가 준우승을, 김인홍 전 용곡 동기가 공동 3위를 했다.

하이런상(6점)도 김기열 동기에 돌아갔다. 패자조에서는 박창수 동기가 우승을, 송충송 동기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협찬〉 김중광 상품권 20만원, 이상수 프로폴리스 캔디, 치약 각 20통, 23산우회 10만원, 김기열 회장 10만원
특별찬조 김영기 500만원.

24회 = 정기모임

지난 4월 24일 2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이 있었다. 또 지난 5월 4일에는 20여명의 동기가 모여 경주 안강마을에서 남해수(남구-해운대구-수영구) 지구 모임을 가



졌다. 또 지난 5월 11일 9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천성산 일대에서 산악회를 가졌다.

25회 = 정기총회, 산우회



지난 2월 20일 터존뷔페에서 20여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가 있었다. 송정규 동기회장이 연임하기로 하였다. 또 지난 4월 17일에는 참숯골에서 2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가 있었다. 지난 5월 13일 백양산 둘레길에서 14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산행이 있었다.

26회 = 월례회

지난 3월 26일 텐이몽에서 2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열어 6월 3일 대동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7회 = 월례회



지난 4월 27일 서면 종가집에서 20여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월례회가 있었다.

28회 = 정기총회



지난 3월 6일 프리미엄 뷔페 더 스타 부산에서 20여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가 있었다.

29회 = 정기총회



지난 4월 10일 광안리소재 용마릿집에서 2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있었다.

30회 = 당구대회



지난 5월 12일 24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재경동기회장배 경부친선 당구대회가 있었다.

33회 = 정기총회



NEWS 동문동정

김용찬 동문(26회) '콘셉트 경영' 발간



IT 컨설턴트 김용찬 동문이 15년간의 연구 끝에 '콘셉트 경영'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콘셉트 경영은 소비자의 마음을 붙든 경험에서 공통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콘셉트

라 일컬으며, 이를 잘 가꾸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성공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관점의 경영 전략이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의 니즈를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을 때 좀 더 현실적이고 업그레이드한 시각의 경영 전략이며, 또한 통찰력을 구하는 경영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그 돌파구를 소비자에게서 찾아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산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창의와 융합이 대표적으로 발휘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저자 김용찬 동문은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복일리노이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 LG-CNS 본사 연구소 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우신전자 통신(주)의 SW 개발부 부장과 이사, 국내최초의 전화정보서비스 회사인 데이텔(주)를 창업해 대표이사를 역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였고, 숭실대학교 경영학과와 노사발전재단, 숭실대학교 대학원 컴퓨터학과 등에서 강의하였다. 저서로는 '개념경영'(2012, 다사랑)이 있다.

박병주 동문(27회) '의당학술상' 수상

박병주 서울의대 교수(27회)가 대한의사협



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5회 의당학술상'을 수상했다.

의당(敎堂)학술상은 대한임상병리학회(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초대 회장을 역

임하고 우리나라 진단검사의학 발전에 초석을 다진 의당 김기홍 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학술상으로, 의협 학술위원회에서 업적평가 등을 거쳐 매년 1인을 선정,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하고 있다.

박병주 교수는 1980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모교의 예방의학교실에서 의학연구를 과학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초학문인 역학과 의학통계학을 전공해 의학박사학위를 받았고, 1988년 1월 모교 예방의학교실에 전임강사로 발령받았다.

투고 환영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용마동문 여러분의 소식을 알리는 창입니다. 여러분의 동정 및 모임, 칼럼, 수필, 시, 기행문, 감상문, 사진, 그림 등을 동문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싶은 것이면 무조건 환영합니다. 아래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편집해 동창회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yongma2007@hanmail.net

동창회보 편집주간 김성원(31회)

지난 3월 14일 협성뷔페에서 3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있었다. 신입 회장에는 김윤성 동기가 선출되었다.

34회 = 제2회 부산재경합동골프모임



지난 4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파인비치CC에서 황기운 회장 부부를 비롯해 모두 17명의 동기와 가족이 참여 하여 제2회 부산재경합동골프모임을 가졌다.

36회 = 정기총회



지난 3월 29일 범일동 화진보쌈에서 4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있었다. 신입 사무국장에 이학수(주)지피알 관리 이사)동기가 선출되었다. 총동창회에서는 박종찬 회장과 옥동훈 총장이 참석하였다. 지난 5월 13일 17명의 동기와 가족이 모인 가운데 부산 남구 이기대 일대 트레킹으로 5월 정기 산행을 가졌다.



39회 = 스승의 날 기념 행사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3학년 7반 담임이었던 박흥관 은사님 내외분을 모시고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다.

41회 = 4월 동기회 모임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서면 미가정 일식에 서 모두 25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전삼록 동기가 신입회장, 김신욱, 성찬기 동기가 신입사무국장에 각각 선출됐다.

참석자들은 전임 이양걸 회장과 백선민 운영한 사무국장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44회 = 스승의 날 기념 행사, 경고 야구부 출정식



지난 5월 11일 부페시즈에서 경남고 야구부 2018 전국대회 출정식을 가졌다. 또 다음

23회=부산 시내 버스투어



고이태석신부의 생가를 둘러 신부가 실천하신 송고한 인류애에 대해 묵상을 하고, 어려웠던 과거를 딛고 지역 문화의 장으로 탈바꿈한 감천문화마을과 해양도시 부산의 한 특경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국립부산과학관(영도 소재)에 둘러 젊은(?)

23회 동기회는 지난 3월 24일 부산 시내 버스투어 행사를 가졌다. 코스는 서면 - 송도/이태석 신부 생가 - 감천/감천문화마을 - 송도/월정소 - 영도/국립해양박물관 - 기장/국립부산과학관 - 대변/힐튼호텔 - 기장향교/흑시루

이날 전상대 동기회장 등 40여명의 동기가 참석해 우정을 나누었다.

할배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기기도 하였다. 확 트인 바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대변의 힐튼호텔에서 배고픔을 달래며 동무들과 한잔의 추억도 만들었다. 흑시루(기장 소재)에 둘러서는 우리의 생활에 알게 모르게 배어있는 유교의 정신과 역사를 대하고는 경건함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날인 12일에는 감전동 갑샘(박명곤 동기 운영)에서 윤길환(두송중학교 교감) 중학교 은사님을 모시고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다.

지난 5월 11일 대신동 초가집에서 20여명의 동기가 모여 친목을 도모하였다.

경분회 = 정기법회



지난 3월 17일 법계정사에서 30여명의 동기와 가족이 모인 가운데 정기법회가 있었다. 회장 : 정영천(21회, 변호사)

49회 = 정기모임



지난 4월 20일 서면 애월에서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모임이 있었다.

뉴질랜드 지역 = 임시총회

지난 4월 27일 오클랜드 소재 '명가 뷔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회장: 이왕봉(29회) 부회장: 왕중모(32회) 사무국장: 김성혁(41회) sankim@gmail.com 감사: 장재영(33회)

50회





함께한 30년! 같이 갈 30년!

준비위원장 김재용	조직강화위원장 신봉준	홍보부국장 민성기
부위원장 박동식, 박영환	재무국장 안정일	자문위원 김영태, 서정오, 안성민, 이응언
기획국장 정용준	세무부국장 정주섭	감사 성창익
기획부국장 권창우	홍보국장 노봉조	

경남고등학교 42회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 2018년 6월 9일(토요일) 1부-15시 : 학교행사 - 모교(국산기념관)
2부-18시 : 30주년 공식 행사 - 코모도호텔(영주동)

▶ 2018년 6월 10일(일요일) 10시 : 용호동 이기대요트관광(우천시 송도해상케이블카)



기본회비 30만원 및 찬조금 입금계좌 / 입금기한 : 2018년 5월 31일

- 본부 : 하나은행 309-910020-04505
예금주: 안정일
- 재경 : 신한은행 042-1985-1988
예금주: 박영환

2018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는 선납부자 ● 총 1,486명 2018. 5. 7.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53-6722-04

예금주 : 경남중고 동창회 박종찬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3회(4명)
송두호 신현익 윤태윤 이안규

4회(5명)
송호길 양종학 장수호 정치근 황갑생

5회(5명)
김석호 김인택 박장후 박종구 정인조

6회(16명)
김상엽 김종철 김태환 박웅진 변영수 오영은 이강윤 이상기 이해훈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최인갑

7회(17명)
강병희 구택용 김명관 김용우 김준수 노상석 박영섭 박환배 송외득 양종완 오장은 원용부 이동우 임성극 임의택 조덕찬 허종호

8회(15명)
문창화 박우상 박희옥 배기현 배주원 안종열 이윤조 이종택 이준혁 이호수 이희순 전영배 최경태 최낙봉 홍기성

9회(14명)
김기관 김철규 박화철 신용익 안규현 유병철 이동현 이주한 장동근 전인규 정해돈 조규양 지삼봉 최성욱

10회(21명)
김상규 김성규 김종술 박철민 오강욱 이계창 이상배 이승영 이승준 이재순 임정우 장인목 장청구 전영대 정무길 정종만 정 훈 조길수 최성열 최순진 허영오

11회(41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광철출 광태업 권병용 김기주 김삼진 김수정 김용만 김용정 김유택 김인섭 김재환 김태호 김학수 문정오 박관호 박수경 박창순 박희태 성기득 심재룡 심재홍 안강태 양수택 오정광 윤태원 이상태 이세영 이종백 이종우 이태순 장영권 정은표 제정오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하종선 **(박희태 2019년)**

12회(50명)
강보순 광진영 구창회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명희 김부생 김부환 김석곤 김영수 김우성 김종련 김종성 김종일 김지희 김호호 박문기 박영윤 박정윤 배병일 배종섭 변동만 손제준 심음치 안상직 안용득 엄태섭 오세정 오수봉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상태 이수영 이승태 이영한 이용희 이원우 이현달 임상원 장지홍 정호중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병훈 탁태정 허은도 홍두표

13회(52명)
구덕건 권영계 김동호 김무조 김상치 김신부 김영문 김정균 김정태 김종의 김한규 김형태 김홍철 문 창 박길만 박안남 박영주 박원길 박정웅 박홍표 배대결 배정은 서시주 성정호 송신의 송창식 신동배 신민철 신하근 안준수 양길승 윤태호 이경재 이경준 이명진 이범경 이상문 이철세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로상 정은섭 조용갑 조철현 최부용 최상호 최태환 한관수 한병조 허갑도 황정대 **(이경재 2019년)**

14회(37명)
권근술 권 명 김덕호 김동규 김준우 김창기 김형수 노수덕 박순일 박종철 박진재 박정홍 백태우 성이경 손영목 송재현 신기석 신준호 신현호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승오 이재돈 이현영 이훈일 장삼식 전상배 정선언 조영봉 최낙섭 최성용 최총락 하문수 한규환 허 증 황원재

15회(48명)
강무송 강민조 강부부 강정남 고석기 김경일 김소현 김성열 김연호 김옥규 김정환 김준근 김중광 김중식 김판열 김환영 박영길 박영길 박영무 박찬호 박철양 박효가 배 훈 서영진 손부홍 신현영 오봉석 윤우경 윤휘정 이상호 이종수 이철성 이필연 임영길 정영선 조규중 조영일 조일량 조진환 최광웅 최병우 최 욱 최원수 하정부 허경도 허광길 허종덕 황중부 **(임영길 2022년)**

16회(45명)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용 김박일 김상용 김상호 김양원 김용진 김정우 김 조 김충길 김형석 노원소 박두영 박영수 박용일 박종봉 박춘호 성기식 성진호 손송방 손용석 송규정 송자문 안국정 여성국 윤희주 이길홍 이맹립 이무근 이영재 이채언 이청원 임승언 정원철 조길우 조원제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17회(36명)
감정은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성오 김용남 김용정 김준연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노동섭 박가식 박영일 박인사 박 찬 서정승 서창석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 종 신희규 어은대 이건웅 이광석 이수창 이재형 정량부 정용화 제양성 차성철 최성호 허영수 허진행 황성진

18회(49명)
강대원 강덕용 강만수 강성태 강인섭 권영대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귀언 김기섭 김사권 김성건 김영국 김옥길 김재창 김종상 김종철 김지호 류종우 문창열 박건태 박덕봉 박상욱 박석도 박 용 박용주 박종구 박종만 박준성 백승래 서재봉 손찬규 양동근 윤봉수 이충남 이태우 이형석 임재영 전상근 정구홍 정우용 정태섭 조성재 차명석 채부영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19회(44명)
강동완 강준권 강환섭 권정덕 김경우 김경재 김덕규 김봉호 김순호 김영복 김영탁 김정우 김중우 김진국 박갑진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배영구 석무관 성한진 신윤철 이명환 이병구 이성달 이양환 이용흠 이창돈 이창윤 이춘만 임채원 장성규 장홍의 정규병 정용식 진수상 최경석 최화익 함진복 허남걸 허홍욱 홍승표 황태경 황태원

20회(38명)
강기철 강석근 강위수 강현진 김대업 김두영 김성룡 김성환 김세준 김순신 김영철 김우홍 김일석 김진환 김형오 남기석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박용덕 박 준 백완균 백창열 손순수 송상윤 오경석 윤봉태 이수호 이영오 장상배 정규식 조운태 차용환 최명호 최석립 최중경 최 철 허남균

21회(49명)
강민우 강상태 강창수 강태순 구분능 구현수 김기현 김대웅 김동우 김상덕 김영삼 김유건

김지호 김창수 김현태 마상준 박명욱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병문 신대윤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우종득 육화원 윤대희 이명환 이준성 이 혁 임경범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조상호 조현국 진영천 최규용 최점수 최종린 탁원령 하영준 한광수 한승헌 한인환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김동우 2019년)**

22회(53명)
김광국 김도살 김동욱 김성재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곤 김정민 김진철 김창해 김철현 김학균 김해현 남백우 노평호 문성철 박규모 박승묵 박언표 박재구 박재상 박홍조 배도원 백봉주 부창전 서항용 손연모 손용섭 안영수 여상규 오세길 이경상 이병수 이윤제 이춘식 이흥기 장성복 장영근 정남식 정해진 조순태 조홍기 최성열 최학봉 하성일 하현성 한경규 한형우 허범도 홍순욱 홍태규

23회(49명)
강창보 고용석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상수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영철 김윤관 김익곤 김정록 김종훈 김주찬 김중광 김태용 박무열 백창영 신동규 신상희 유원형 유진무 윤길원 윤종관 윤태규 이덕권 이병찬 이부식 이성환 이윤석 장백기 장병규 전상대 정귀출 정기용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정용성 조장래 조한용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허병상 홍영희 **(이부식 2020년)**

24회(65명)
강기중 강동우 광두희 구분열 구자용 권영기 권해영 김경남 김동운 김무성 김성득 김승탁 김명민 김영식 김윤수 김준기 김태홍 김학성 김헌태 남창영 노상우 문취영 박극제 박맹렬 박윤성 박창중 박창호 박홍규 백운룡 변용준 서정대 성춘기 손성호 손세영 손인수 송수건 신장우 안형수 여옥주 여철우 원동희 이광호 이동진 이명규 이명복 이 수 이영태 이종구 임민호 전용우 정동화 정명근 정명동 정용호 정윤상 조용화 조재진 주승환 주점권 지인덕 최연호 최진우 한상렬 한태윤 황성훈

25회(90명)
고명식 권태용 김광배 김규화 김규진 김길수 김남일 김대현 김봉철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석 김영명 김영익 김영호 김옥권 김용경 김우형 김유환 김익수 김중만 김종윤 김종현 김진철 김창욱 김철수 김태선 노태호 박광용 박맹우 박성길 박세철 박원규 박종찬 박창준 배기동 배대관 배동명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손기천 송기현 송무룡 송정규 신성기 신성찬 안희석 양시욱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우경욱 이상조 윤태석 이대우 이동석 이동익 이명철 이상식 이상화 이성호 이찬형 이창훈 이한식 이흥익 임영대 장선근 전섭태 정무동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광도 조판제 좌상봉 주재걸 차인환 최병주 최재환 최차환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한준석 허 택 황곤태 **(박종찬 2019년)**

26회(62명)
강영녕 고석훈 김기성 김두천 김상현 김영섭 김중우 김주병 김태규 김호용 남인희 민창현

박경수 박경재 박근석 박동조 박상호 박오욱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효대 서치호 성백운 성재업 손옥호 신기용 신대철 신동춘 심송택 안길호 양국명 왕정일 왕효석 윤수현 이경호 이규생 이규용 이명진 이상원 이성근 이재봉 이정곤 이주형 이창식 이희준 임정호 장경재 정익교 정한경 조만석 조일제 지용섭 최명해 최성락 최성수 하성봉 하원규 하주곤 허갑석 현동우 황광수 **(이상원, 황광수 2019년)**

27회(42명)
강봉호 김강호 김광철 김병열 김병욱 김병추 김상문 김안석 김영삼 김원용 김재연 김중욱 김중하 김진명 김준영 김태우 김태운 김학희 김호균 박규욱 박병주 박찬석 박춘규 반정열 배효택 신한원 안종택 양태종 오봉인 유성모 유영호 윤모성 윤종락 이민부 이성득 이천식 이 현 장창조 정두식 최인성 한상훈 한수길 **(반정열 2019년)**

28회(46명)
구영소 권기택 김만중 김선경 김인준 김준배 김준연 김태완 김흥국 노영현 민교식 박성권 박세혁 박영규 박윤철 박종기 박진화 백영호 서기희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오호석 옥상근 유봉수 윤경섭 윤대주 윤명수 이민우 이용남 이윤규 이정권 이종대 이흥오 임익성 전광병 전진학 정두현 정영주 조석태 주종목 주창식 최강호 최연욱 허남식 황장두 **(안 풍 2022년)**

29회(67명)
강대용 금시환 김기영 김대영 김석윤 김 영 김영훈 김영휘 김용채 김재현 김종명 김종진 김철오 김태완 김호성 김홍기 문명환 박국인 박근우 박명섭 박병를 박상길 박성철 박창언 배진영 백성욱 서봉교 서석철 서영학 손영보 손홍근 송희태 신호범 신홍기 안정홍 양승오 윤석희 윤 욱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석조 이성열 이재성 이준환 임병성 임채병 장 만 정 길 정성훈 정윤수 정종기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조한우 주재휘 차익수 최문성 최범수 최영식 최원락 최정만 최종열 한만수 현계성 황유명 **(황유명 2020년)**

30회(57명)
권용택 김기섭 김백수 김상직 김승대 김인섭 김종진 김창근 김해근 김헌태 남영호 노동춘 박관식 박원호 박인달 박중배 박희관 배기경 백기연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서헌덕 신교선 신구균 심풍수 오광태 오충조 유재일 유현덕 윤인태 이균우 이기환 이성기 이진걸 이태봉 이호걸 인준승 장호영 정광덕 정기룡 정성원 정영호 정우정 조경제 채영재 최병철 최병태 최우철 최원수 최진곤 하규양 하여동 하재명 한효용 허선행 황철민 **(이기환 2019년)**

31회(42명)
공종렬 김 만 김성원 김시현 김정덕 김중호 김태근 김호성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류명석 문성일 박인정 박종호 박준열 박해성 배인환 배정우 서수교 서정호 서태교 손영태 신상하 신수열 안중수 오민일 옥치호 윤석중 이상일 장정철 장명우 정무석 정원규 조영기 천창호 최진섭 최효식 하명수 하병관 하학렬 허일현

32회(18명)
강기상 김동균 김영길 민길식 박운대 박중구 박진원 설원실 송승익 신국선 신철호 안영호 유성대 윤종열 이문영 이병훈 이성훈 임채균 (송승익 2019년)

33회(24명)
김기산 김명환 김법영 김원일 김재도 김재선 김중만 김종인 김 철 김 혁 류장근 박명진 박용득 서재영 안영훈 오항선 이동근 이진우 이형근 조덕환 주기훈 지창근 최홍원 황경원 (김중만 2019년)

34회(20명)
곽수균 김두섭 김범석 김삼갑 김주섭 김중근 김태하 노인선 옥재명 이재완 이진호 장경원 장현기 정노혁 정성근 정하태 조문국 조 선 조시형 최대한 (정노혁, 정하태 2019년)

35회(22명)
김관우 김기철 김동인 김동일 김선택 김우경 나동욱 백현호 서상욱 서석권 성창용 안창돈 이기석 이종찬 이효성 장우진 장인화 정효영 진호준 최기평 하승훈 황용순

36회(28명)
공진식 권일복 김규선 김영훈 김용진 김종백

김종오 김종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박영준 박용칠 박진용 방진영 서광원 신승렬 신용덕 윤경준 이동희 이상권 이성호 이원석 이학수 임창섭 정윤희 최승호 홍의창

37회(19명)
강성옥 김상현 김명근 김원범 김형기 김화중 문진형 문희영 박만규 성창수 신우진 유호섭 윤태현 정재호 조성각 탁낙준 하태민 홍병일 황태윤

38회(20명)
김문철 김태호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정민 박준표 손태환 신동훈 심재영 안길수 오승언 오희진 이종명 정인철 정준기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차성철

39회(51명)
고봉정 김경곤 김대중 김병기 김영부 김용태 김윤홍 김중엽 김천술 김태호 김형보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인석 박종국 박준곤 박진열 백기현 서은식 송영호 심왕섭 안영준 양원정 엄일규 여동섭 오선호 오충현 원우광 윤동배 윤상훈 윤원욱 이가용 이남규 이배근 이상학 이승기 이원영 이종운 임성욱 장동수 장영욱 장 훈 정순환 정연설 정영철 정우영 정의창

정진해 천용준 황영진

40회(9명)
배병호 배영진 심 철 옥진형 우영환 이영철 이정삼 최치연 최태훈

41회(15명)
강석희 김봉준 김인수 박상환 박정의 성찬기 원태용 이경호 이광희 이양걸 임병호 천성원 하범중 한정호 허중윤

42회(11명)
김재용 김정연 김태구 박동식 박일수 서정호 신동복 신봉준 신봉준 제용환 제정환

43회(6명)
강병규 구명진 김종식 김진수 박형규 심문섭

44회(7명)
박민수 배봉건 송동근 우도균 이동렬 임정훈 임지훈

45회(3명) 김상수 김현호 이수태

46회(30명)
강남구 권성기 권진근 김규태 김대기 김동욱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승완 김태영 김태준 김희택 문정기 백경택 서승진 신정일 안명기 오영훈 윤경한 윤성근 이동수 이동엽 이성민 장윤성 최경근 최원석 한영길 홍이준 황상철

(이성민 2019년, 한영길 2022년)

47회(3명)
성상용 정민호 천영훈 (성상용 2020년)

49회(4명) 김현우 안형수 최유탄 최진영

50회(3명)
김연태 박종현 백광선 (박종현 2027년)

51회(14명)
강승호 구민석 김기호 김대우 김동규 도희중 박보순 반길호 손현직 염권아 오준호 이건영 이현승 정우석

52회(1명) 김민철

54회(1명) 양형욱

55회(2명) 김태련 이항림

67회(1명)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경고학교운영위원회 등(1명) 명예회원 박희규 (2020년)

기수 & 이름 확인불명 13명



어디서 무엇을?

<13회>
△ 박영충 = 3월 4일 부친상

<14회>
△ 김영대 = 부인 권의경 여사 개인전시회. 3월 12일~ 18일까지. 부산시청 제2 전시관

<15회>
△ 정강홍 = 4월 25일 아들 결혼

<17회>
△ 박 찬 = 6월 9일 차남 결혼

<19회>
△ 김덕수 = 4월 14일 장남 결혼 △ 김 정우 = 3월 12일 딸 김희정 피아노 독주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5월 16일 며느리 유초롱 피아노 독주회, 금호아트홀 △ 선우일남 = 5월 5일 부친상

<20회>
△ 문시영 = 3월 13일 모친상 △ 장병두 = 4월 14일 장남 결혼 △ 차재권 = 3월 26일 모친상

<23회>
△ 김기열 = 5월 11일 모친상 △ 이충호 = 4월 28일 아들 결혼

<24회>
△ 박창호 = 5월 10일 모친상 △ 박천호 = 4월 21일 장남 결혼 △ 서정대 = 4월 21일 장남 결혼 △ 손종식 = 일본 후쿠오카 총영사, 3월 21일 모친상

<25회>
△ 한현교 = 3월 31일 차남 결혼 △ 황

철 = 5월 19일 장남 결혼

<26회>
△ 고석훈 = 4월 19일 모친상 △ 구영호 = 6월 17일 차남 결혼 △ 권종대 = 6월 2일 장녀 결혼 △ 김용찬 = 4월 12일 저서 「콘셉트 경영」 발간 △ 배홍규 = 5월 12일 차남 결혼 △ 서준희 = 6월 9일 장남 결혼 △ 이상배 = 4월 28일 장남 결혼 △ 장원표 = 6월 3일 딸 결혼 △ 최윤림 = 4월 14일 장남 결혼 △ 하길태 = 4월 15일 장녀 결혼

<27회>
△ 강병훈 = 4월 4일 모친상 △ 김종철 = 3월 11일 모친상 △ 문기영 = 3월 5일 모친상 △ 문우철 = 4월 14일 장남 결혼 △ 이기우 =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 3월 17일 선거사무실 개소.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6-10(뽕봉기 정형외과 9층.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이길영 = 4월 2일 모친상 △故지태성 = 4월 28일 장남 결혼

<28회>
△ 강재화 = 3월 31일 장녀 결혼 △ 김정환 = 3월 16일 부친상 △ 김종상 = 3월 13일 빙부상 △ 양동욱 = 4월 28일 아들 결혼 △ 이승열 = 4월 29일 아들 결혼

<29회>
△ 김종운 = 5월 20일 장녀 결혼 △ 문창견 = 5월 19일 장남 결혼 △ 박동흙 = 4월 22일 차남 결혼 △ 류영이 = 5월 12일 장남 결혼 △ 신흥기 = 3월 6일 부친상 △ 안종주 = 5월 26일 차남 결혼 △ 양재창 = 3월 18일 모친상 △ 이병건 = 3월 24일 장녀 결혼 △ 이상운 = 4월 12일 빙부상 △ 전현수 = 5월 10일 제9회 원효학술상 대상 수상 △ 정진수 = 6월 10일 장남 결혼 △ 조학욱 = 4월 7일 차남 결혼 △ 최기훈 = 4월 29일 빙모상 △ 한윤식 = 4월 23일 부친상

<30회>
△ 고영우 = 5월 5일 장녀 결혼 △ 구 의본 = 5월 14일 부친상 △ 김병욱 = 6월 9일 장남 결혼 △ 박규완 = 3월 2일 은종합병원 외과과장 취임 △ 박기형 = 3월 5일 씨젠의료재단 학술원장 취임 △ 박영웅 = 3월 11일 모친상 △ 유재일 = 피스코마린 전무이사 부임 △ 윤성덕 = 4월 30일 부친상 △ 윤중순 = 5월 3일 모친상 △ 이영석 = 4월 29일 장남 결혼 △ 장호영 = 5월 26일 장녀 결혼 △ 홍인기 = 3월 8일 모친상

<31회>
△ 서수교 = 4월 15일 빙모상 △ 윤정수 = 5월 5일 장남 결혼 △ 이석우 = 5월 2일 모친상 △ 홍기철 = 5월 19일 장남 결혼

<32회>
△ 강수재 = 5월 6일 딸 결혼 △ 김종성 = 5월 20일 차녀 결혼 △ 변문성 = 5월 12일 딸 결혼

<33회>
△ 지창근 = 4월 11일 빙부상

<34회>
△ 김종엽 = 5월 12일 장남 결혼 △ 김중근 = 5월 11일 사무실 개소.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빌딩 3405호 △ 박기훈 = 6월 2일 아들 결혼 △ 배성산 = 4월 29일 모친상 △ 오주흔 = 5월 5일 모친상 △ 황용섭 = 5월 26일 아들 결혼

<36회>
△ 김정현 = 5월 18일 부친상 △ 김동기 = 5월 19일 모친상

<41회>
△ 김재광 = 3월 30일 모친상 △ 윤성한 = 5월 10일 부친상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성빈(13회) = 5월 14일 작고
- ▶김경수(14회) = 4월 7일 작고
- ▶박진재(14회) = 4월 20일 작고
- ▶성윤환(17회) = 3월 28일 작고
- ▶박도형(18회) = 1월 5일 작고
- ▶양중석(20회) = 4월 11일 작고
- ▶배규운(24회) = 4월 8일 작고
- ▶김종철(26회) = 3월 27일 작고
- ▶유성종(26회) = 4월 17일 작고
- ▶오세현(27회) = 3월 19일 작고
- ▶안병엽(29회) = 3월 3일 작고

동 창 회 보 광 고

동창회보 광고를 받습니다.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고가 동창회의 활력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 광고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뒷면 전면광고 200만원/ 반면광고 100만원.
안쪽 전면광고 150만원/ 반면광고 75만원.
4단 하단광고는 40만원.

광고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051-245-7551~3
또는 동창회보 편집주간
010-3878-3485

경남중고 총동창회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본부)

2018년 3월 1일까지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故김근준	(1회)	100만원	김성찬	(12회)	50만원	김승현	(17회)	100만원	박석도	(18회)	20만원	김문관	(22회)	20만원	이명철	(25회)	100만원	송명석	(28회)	20만원	김중휘	(30회)	100만원
김희철	(3회)	30만원	김수원	(12회)	10만원	김용구	(17회)	100만원	박준성	(18회)	20만원	김성재	(22회)	50만원	강영녕	(26회)	200만원	엄보용	(28회)	100만원	김창근	(30회)	30만원
송두호	(3회)	1000만원	김용호	(12회)	10만원	김용남	(17회)	10만원	황광건	(18회)	200만원	김우홍	(22회)	300만원	권중대	(26회)	100만원	엄재홍	(28회)	200만원	김해근	(30회)	200만원
김주호	(4회)	20만원	김우성	(12회)	10만원	김조일	(17회)	10만원	강영범	(19회)	10만원	김일준	(22회)	30만원	김두천	(26회)	100만원	옥상곤	(28회)	200만원	김현태	(30회)	100만원
박석만	(4회)	20만원	김종수	(12회)	50만원	김준연	(17회)	100만원	김경재	(19회)	100만원	김정곤	(22회)	200만원	김상현	(26회)	500만원	옥준원	(28회)	100만원	박동욱	(30회)	50만원
박흥기	(4회)	30만원	김종원	(12회)	10만원	김준위	(17회)	100만원	김문기	(19회)	20만원	김진영	(22회)	100만원	김우갑	(26회)	50만원	윤경섭	(28회)	200만원	박원호	(30회)	100만원
양종학	(4회)	300만원	김종일	(12회)	10만원	김지창	(17회)	30만원	김봉호	(19회)	500만원	김학균	(22회)	1000만원	김중우	(26회)	200만원	이경포	(28회)	200만원	박재백	(30회)	30만원
장수호	(4회)	100만원	김진갑	(12회)	20만원	김창운	(17회)	300만원	김삼도	(19회)	10만원	노세현	(22회)	260만원	김태권	(26회)	10만원	이만수	(28회)	200만원	박정태	(30회)	30만원
정순모	(4회)	200만원	김철기	(12회)	100만원	김태호	(17회)	20만원	김석윤	(19회)	20만원	민훈기	(22회)	10만원	김 형	(26회)	200만원	이만재	(28회)	100만원	박철우	(30회)	100만원
정인조	(5회)	100만원	김춘광	(12회)	10만원	김효남	(17회)	10만원	김양곤	(19회)	50만원	박상갑	(22회)	50만원	김호용	(26회)	200만원	이승하	(28회)	100만원	서강태	(30회)	110만원
김윤용	(6회)	10만원	김효구	(12회)	10만원	문석웅	(17회)	50만원	김영우	(19회)	100만원	박언표	(22회)	100만원	박권병	(26회)	200만원	이원용	(28회)	100만원	서민석	(30회)	60만원
나오연	(6회)	100만원	남기용	(12회)	1000만원	박가식	(17회)	100만원	김정국	(19회)	10만원	박재상	(22회)	2000만원	박상호	(26회)	1550만원	이원철	(28회)	400만원	서복현	(30회)	100만원
노재형	(6회)	10만원	박영윤	(12회)	10만원	박신도	(17회)	200만원	김중기	(19회)	10만원	박재인	(22회)	50만원	박재욱	(26회)	500만원	임재덕	(28회)	100만원	서재원	(30회)	30만원
오영은	(6회)	200만원	박용운	(12회)	10만원	박영두	(17회)	20만원	김철호	(19회)	100만원	손연모	(22회)	100만원	배용호	(26회)	50만원	정성목	(28회)	200만원	서하수	(30회)	200만원
이길상	(6회)	30만원	박정윤	(12회)	10만원	박영일	(17회)	10만원	남기진	(19회)	100만원	유재진	(22회)	1000만원	성재업	(26회)	50만원	정영주	(28회)	50만원	석대식	(30회)	30만원
이희문	(6회)	30만원	박종정	(12회)	100만원	박인사	(17회)	100만원	박갑진	(19회)	30만원	이동열	(22회)	100만원	성재일	(26회)	200만원	정해영	(28회)	100만원	송영환	(30회)	100만원
임경택	(6회)	10만원	박창수	(12회)	30만원	박재구	(17회)	20만원	박동화	(19회)	300만원	장무성	(22회)	100만원	양준영	(26회)	50만원	최강호	(28회)	500만원	송한식	(30회)	30만원
장재수	(6회)	20만원	안상직	(12회)	30만원	박종구	(17회)	100만원	박상식	(19회)	50만원	장성복	(22회)	1000만원	엄윤섭	(26회)	100만원	한명재	(28회)	200만원	신범주	(30회)	30만원
정건용	(6회)	10만원	안영규	(12회)	20만원	박정홍	(17회)	100만원	박종화	(19회)	100만원	장성덕	(22회)	1000만원	왕정일	(26회)	100만원	한수범	(28회)	50만원	신영주	(30회)	30만원
정상철	(6회)	30만원	안영배	(12회)	10만원	백철균	(17회)	10만원	성낙출	(19회)	100만원	장영근	(22회)	100만원	이경호	(26회)	100만원	허영철	(28회)	200만원	신윤원	(30회)	30만원
정세동	(6회)	20만원	엄태섭	(12회)	30만원	서재홍	(17회)	20만원	신윤철	(19회)	30만원	정해진	(22회)	50만원	이규생	(26회)	70만원	김기영	(29회)	50만원	안종학	(30회)	100만원
최상해	(6회)	10만원	오세정	(12회)	20만원	서정승	(17회)	200만원	안정모	(19회)	20만원	조윤재	(22회)	200만원	이상원	(26회)	200만원	김대욱	(29회)	3000만원	오경태	(30회)	10만원
허택	(6회)	30만원	옥계한	(12회)	100만원	손성근	(17회)	200만원	이성달	(19회)	100만원	최학봉	(22회)	100만원	이순철	(26회)	50만원	김도태	(29회)	30만원	왕순모	(30회)	30만원
이우호	(7회)	50만원	왕한균	(12회)	100만원	송유근	(17회)	30만원	이용만	(19회)	10만원	허범도	(22회)	1000만원	이영덕	(26회)	100만원	김석윤	(29회)	30만원	유영록	(30회)	10만원
故공상태	(8회)	100만원	윤성희	(12회)	12만원	송인문	(17회)	100만원	이용홍	(19회)	1000만원	김동욱	(23회)	200만원	정거돈	(26회)	100만원	김영기	(29회)	10만원	유재일	(30회)	10만원
구본섭	(8회)	100만원	이수영	(12회)	10만원	신정아	(17회)	10만원	이장희	(19회)	100만원	김동욱	(23회)	50만원	정국근	(26회)	100만원	김인술	(29회)	100만원	윤기승	(30회)	50만원
김봉길	(8회)	500만원	이승훈	(12회)	10만원	신종	(17회)	30만원	장홍의	(19회)	500만원	김상영	(23회)	50만원	정익교	(26회)	100만원	김정암	(29회)	100만원	윤성덕	(30회)	1000만원
박동열	(8회)	1000만원	이용언	(12회)	50만원	안정의	(17회)	30만원	최연근	(19회)	10만원	김영기	(23회)	1억200만원	조일제	(26회)	50만원	김종명	(29회)	30만원	윤인태	(30회)	50만원
안종렬	(8회)	100만원	이원우	(12회)	100만원	여성열	(17회)	10만원	최화익	(19회)	10만원	김용기	(23회)	20만원	최수일	(26회)	50만원	박동일	(29회)	50만원	윤준순	(30회)	30만원
윤상현	(8회)	10만원	임정명	(12회)	30만원	오태식	(17회)	100만원	황태경	(19회)	20만원	김용선	(23회)	30만원	하원규	(26회)	500만원	박동혁	(29회)	200만원	이광봉	(30회)	30만원
이윤조	(8회)	100만원	정대식	(12회)	10만원	우기남	(17회)	50만원	황태원	(19회)	1000만원	김정록	(23회)	20만원	한원우	(26회)	100만원	박상길	(29회)	100만원	이광희	(30회)	20만원
장혁표	(8회)	100만원	정영철	(12회)	200만원	윤성욱	(17회)	500만원	황호균	(19회)	100만원	김중광	(23회)	100만원	하주근	(26회)	50만원	박성철	(29회)	200만원	이기환	(30회)	100만원
김영국	(9회)	10만원	최병준	(12회)	10만원	윤수성	(17회)	30만원	강석근	(20회)	300만원	김태용	(23회)	100만원	26회 구형회	100만원	박인평	(29회)	50만원	이명건	(30회)	30만원	
김종호	(9회)	50만원	최병훈	(12회)	10만원	이건우	(17회)	100만원	강영환	(20회)	10만원	김 현	(23회)	30만원	김진희	(27회)	100만원	배진영	(29회)	100만원	이영준	(30회)	30만원
김태영	(9회)	10만원	최신일	(12회)	20만원	이성흙	(17회)	30만원	김세준	(20회)	100만원	노영배	(23회)	200만원	류재결	(27회)	10만원	사공운곤	(29회)	30만원	이인길	(30회)	50만원
박당희	(9회)	20만원	탁혜정	(12회)	10만원	이세복	(17회)	1000만원	김원울	(20회)	10만원	박수갑	(23회)	100만원	문두찬	(27회)	500만원	송희태	(29회)	50만원	이학수	(30회)	700만원
성백규	(9회)	10만원	하일민	(12회)	30만원	이수창	(17회)	100만원	김일석	(20회)	100만원	서영수	(23회)	100만원	윤종락	(27회)	10만원	양승오	(29회)	80만원	이한수	(30회)	20만원
신석현	(9회)	20만원	한춘배	(12회)	10만원	이우기	(17회)	10만원	김태선	(20회)	300만원	서한현	(23회)	10만원	이요섭	(27회)	30만원	윤종경	(29회)	150만원	이환기	(30회)	30만원
이대규	(9회)	100만원	김정성	(13회)	30만원	이일영	(17회)	10만원	김태영	(20회)	500만원	손군식	(23회)	100만원	이 현	(27회)	10만원	윤형근	(29회)	50만원	인준승	(30회)	20만원
이영구	(9회)	10만원	이경재	(13회)	100만원	이정보	(17회)	10만원	김형오	(20회)	1000만원	송충송	(23회)	50만원	한수길	(27회)	200만원	이경호	(29회)	100만원	임영수	(30회)	50만원
한동대	(9회)	50만원	이정명	(13회)	30만원	이종길	(17회)	10만원	노기태	(20회)	500만원	신상희	(23회)	100만원	27회 동기회(60명)		이석조	(29회)	500만원	임영호	(30회)	30만원	
황영선	(9회)	20만원	정철기	(13회)	30만원	이종혁	(17회)	100만원	(경고 직접 기부)			안병율	(23회)	20만원	2740만원		이승호	(29회)	100만원	장영조	(30회)	30만원	
김상국	(10회)	20만원	황일인	(13회)	100만원	이형우	(17회)	100만원	박병철	(20회)	500만원	안병화	(23회)	20만원	LA지역 27회 동기회(4명)		이종포	(29회)	50만원	정영호	(30회)	100만원	
김선동	(10회)	20만원	김경일	(15회)	1000만원	장승구	(17회)	200만원	박형준	(20회)	100만원	안성민	(23회)	100만원	400만원		임광열	(29회)	100만원	정승진	(30회)	30만원	
김성규	(10회)	50만원	서정욱	(15회)	10만원	전경명	(17회)	100만원	배서호	(20회)	200만원	옥치범	(23회)	300만원	구영소	(28회)	500만원	임상훈	(29회)	50만원	정채희	(30회)	60만원
박재경	(10회)	10만원	손부홍	(15회)	500만원	정량부	(17회)	100만원	백문찬	(20회)	100만원	원인건	(23회)	200만원	김관세	(28회)	100만원	전창희	(29회)	100만원	천성일	(30회)	10만원
박종문	(10회)	20만원	이상모	(15회)	30만원	정태일	(17회)	100만원	신원기	(20회)	200만원	육병천	(23회)	20만원	김기태	(28회)	300만원	장 만	(29회)	100만원	최상호	(30회)	50만원
신대수	(10회)	20만원	임영길	(15회)	100만원	정해표	(17회)	10만원	이실근	(20회)	100만원	윤순현	(23회)	200만원	김만중	(28회)	300만원	정 길	(29회)	100만원	최영규	(30회)	20만원
오강욱	(10회)	200만원	하정부	(15회)	10만원	제양성	(17회)	50만원	장상배	(20회)	300만원	이동성	(23회)	100만원	김명영	(28회)	200만원	정성훈	(29회)	100만원	최우철	(30회)	2억 500만원
이봉원	(10회)	10만원	한해수	(15회)	1000만원	조용운	(17회)	30만원	장춘식	(20회)	10만원	이문희	(23회)	200만원	김명준	(28회)	100만원	조승제	(29회)	100만원	(2억 경고 직접 기부)		
이언희	(10회)	20만원	강종국	(16회)	10만원	조증언	(17회)	500만원	정규식	(20회)	300만원	이병찬	(23회)	300만원	김부윤	(28회)	100만원	황유명	(29회)	30만원	최재봉	(30회)	100만원
임호웅	(10회)	20만원	강진중	(16회)	10만원	천용광	(17회)	10만원	정용환	(20회)	300만원	이상수	(23회)	50만원	김상정	(28회)	100만원	강석철	(30회)	30만원	추태명	(30회)	10만원
전영대	(10회)	20만원	김상호	(16회)	100만원	최만식	(17회)	5000만원	차상곤	(20회)	200만원	이중호	(23회)	100만원	김용석	(28회)	110만원	권영인	(30회)	30만원	하규양	(30회)	100만원
정승석	(10회)	50만원	박춘호	(16회)	10만원	최성호	(17회)	1000만원	채경석	(20회)	200만원	전영조	(23회)	200만원	김정유	(28회)	200만원	권용택	(30회)	50만원	하전근	(30회)	10만원
조양제	(10회)	1000만원	여성국	(16회)	10만원	추봉실	(17회)	10만원	최장하	(20회)	300만원	전원익	(23회)	30만원	김중섭	(28회)	100만원	구을석	(30회)	10만원	허영재	(30회)	30만원
허영오	(10회)	200만원	강주수	(17회)	10만원	허영수	(17회)	300만원	한기완	(20회)	100만원	정상건	(23회)	200만원	김중성	(28회)	250만원	김경수	(30회)	30만원	황철민	(30회)	100만원
공상기	(11회)	100만원	권경술	(17회)	100만원	허중언	(17회)	30만원	허규판	(20회)	1000만원	조현표	(23회)	50만원	김준배	(28회)	100만원	김기섭	(30회)	100만원	30회 울산동기회		
김재관	(11회)	30만원	김길호	(17회)	100만원	황중부	(17회)	10만원	허남균	(20회)	300만원	채행윤	(23회)	100만원	김준연	(28회)	200만원	김기수	(30회)	10만원	450만원		
백연균	(11회)	30만원	김동수	(17회)	500만원	현태일	(17회)	100만원	강창수	(21회)	500만원	최인식	(23회)	50만원	김형진	(28회)	250만원	김기업	(30회)	50만원	공광욱	(31회)	50만원
심재룡	(11회)	120만원	김동조	(17회)	10만원	17회마산동기회(김무상, 송인창, 정광우, 최좌삼)			김성환	(21회)	300만원	하복진	(23회)	20만원	김홍중	(28회)	100만원	김백수	(30회)	30만원	공종렬	(31회)	12만원
강수현	(12회)	2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총동창회)

2018년 3월 1일 ~ 2018년 5월 25일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김종만(33회)		200,000	※기금모금 기간 중 경남고에 직접 기부하신 분			4월 30일) - 발전위원회 기부 500만원 별도					
임창섭(36회)		200,000	노기태(20회) 500만원(2016년 12월 16일)			손영태(31회) 1억원(2013년 7월 17일)					
32회 동기회		2,000,000	- 소계 : 240만원			최우철(30회) 2억원(2014년 4월 17일, 2015년			- 총 누계금액 : 13억2,707만원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김정덕(31회)		12만원	손은정(31회)		12만원	정철수(31회)		500만원	김기산(33회)		70만원	황용순(35회)		10만원								
김정택(31회)		12만원	손정수(31회)		24만원	조성근(31회)		12만원	김법영(33회)		3000만원	김영훈(36회)		100만원								
김종호(31회)		120만원	손진기(31회)		12만원	조영기(31회)		24만원	김재선(33회)		100만원	김철원(36회)		100만원								
김진국(31회)		12만원	신상해(31회)		12만원	조현우(31회)		12만원	김종인(33회)		12만원	이동희(36회)		30만원								
김태근(31회)		100만원	신수열(31회)		12만원	천장호(31회)		12만원	류장근(33회)		100만원	임창섭(36회)		10만원								
김판덕(31회)		12만원	심규열(31회)		12만원	최경우(31회)		32만원	류홍영(33회)		30만원	정인석(36회)		30만원								
김현주(31회)		12만원	심재홍(31회)		12만원	최봉근(31회)		12만원	박명진(33회)		5500만원	김길영(37회)		20만원								
김현율(31회)		12만원	안기수(31회)		24만원	최상규(31회)		12만원	박성병(33회)		10만원	김원범(37회)		10만원								
남기태(31회)		200만원	안우현(31회)		60만원	최재호(31회)		12만원	백수현(33회)		50만원	박용진(37회)		50만원								
남철우(31회)		60만원	오민일(31회)		300만원	최진섭(31회)		200만원	서재영(33회)		100만원	양귀수(37회)		10만원								
류명석(31회)		100만원	오용환(31회)		120만원	최해영(31회)		12만원	송종헌(33회)		100만원	조영규(37회)		20만원								
박경수(31회)		200만원	윤정수(31회)		20만원	최효식(31회)		60만원	신용준(33회)		10만원	홍병일(37회)		10만원								
박석기(31회)		100만원	이병태(31회)		100만원	하명수(31회)		30만원	이순환(33회)		1000만원	홍원석(37회)		10만원								
박석두(31회)		100만원	이석우(31회)		12만원	하학열(31회)		120만원	이형근(33회)		50만원	황태윤(37회)		10만원								
박인정(31회)		12만원	이승진(31회)		12만원	한광규(31회)		12만원	정인실(33회)		10만원	37회 동기회		200만원								
박종규(31회)		100만원	이채웅(31회)		24만원	허일현(31회)		12만원	최영두(33회)		12만원	곽동열(38회)		10만원								
박희암(31회)		12만원	장건호(31회)		12만원	홍성수(31회)		120만원	한상봉(33회)		100만원	박준표(38회)		20만원								
배정우(31회)		12만원	장성호(31회)		12만원	김창범(32회)		20만원	34회 동기회		1000만원	오희진(38회)		10만원								
서동균(31회)		12만원	장재훈(31회)		12만원	박영욱(32회)		30만원	오상민(34회)		30만원	이종명(38회)		300만원								
서수교(31회)		100만원	장평우(31회)		300만원	이병준(32회)		100만원	이재완(34회)		500만원	김도경(39회)		20만원								
서태교(31회)		100만원	정 문(31회)		120만원	최준호(32회)		100만원	이진호(34회)		200만원	김윤홍(39회)		30만원								
손영태(31회)		1억원	정용정(31회)		50만원	허 규(32회)		10만원	김동인(35회)		10만원	김진호(39회)		20만원								
(경고 직접 기부)			정인화(31회)		12만원	허재창(32회)		30만원	김병수(35회)		10만원	박인석(39회)		100만원								
성오용(31회)		12만원	정정남(31회)		132만원	계동원(33회)		30만원	이남기(35회)		10만원	양정교(39회)		10만원								
											이종민(41회)		0만원	이영수(39회)		10만원	이주하(41회)		30만원	김해지역동창회		300만원
											김형철(40회)		10만원	한성호(39회)		10만원	이준석(41회)		10만원	뉴질랜드동창회		50만원
											김병오(41회)		10만원	김영진(40회)		10만원	임병호(41회)		10만원	부산교통공사용마회		100만원
											강석희(41회)		10만원	이명철(40회)		10만원	장익조(41회)		10만원	사하지역동창회		300만원
											김봉준(41회)		30만원	장필상(41회)		10만원	정필상(41회)		10만원	샌프란시스코동문		50만원
											김형률(41회)		50만원	조원호(41회)		10만원	조원호(41회)		10만원	(9회 조동훈, 윤종대, 11		
											남관희(41회)		30만원	천성원(41회)		10만원	천성원(41회)		10만원	회 추기석, 박병호, 12회 최		
											류지섭(41회)		30만원	최호열(41회)		10만원	최호열(41회)		10만원	수웅, 14회 정조웅, 김철규,		
											박정기(41회)		20만원	추교용(41회)		30만원	추교용(41회)		30만원	21회 손석보, 양경헌, 정갑		
											유수호(41회)		10만원	허치회(41회)		50만원	허치회(41회)		50만원	식, 김수라, 하재청, 23회		
											윤성보(41회)		20만원	홍동훈(41회)		30만원	홍동훈(41회)		30만원	방기준, 26회 육승주)		
											윤성환(41회)		10만원	홍석우(41회)		50만원	홍석우(41회)		50만원	시카고동문		107만원
											이경석(41회)		50만원	41회 산악회		30만원	41회 산악회		30만원	(22회 김정수 회장 외)		
											이광호(41회)		30만원	이용상(43회)		10만원	이용상(43회)		10만원	용마회		190만원
											이영철(41회)		200만원	김진수(43회)		42만원	김진수(43회)		42만원	(시창:91만, 사하구창:45		
											이종민(41회)		0만원	최성필(43회)		40만원	최성필(43회)		40만원	만, 서구창:54만)		
											이종민(41회)		0만원	44회 동기회		500만원	44회 동기회		500만원	채동경문회200만원		
											이종민(41회)		0만원	장성익(45회)		50만원	장성익(45회)		50만원	김정옥(전 경중 재직 교사)		
											이종민(41회)		0만원	47회 동기회(26명)		300만원	47회 동기회(26명)		300만원	100만원		
											이종민(41회)		0만원	박종현(50회)		100만원	박종현(50회)		100만원	남석희(전 경고 재직 교사)		
											이종민(41회)		0만원	김경원(54회)		10만원	김경원(54회)		10만원	30만원		
											이종민(41회)		0만원	故표종빈(64회)		500만원	故표종빈(64회)		500만원	신길송(기수불명)		18만원
											이종민(41회)		0만원	故박태현 은사			故박태현 은사			기 태(이름불명)		3만원
											이종민(41회)		0만원	(박치호, 27회)		1000만원	(박치호, 27회)		1000만원	- 합계 : 13억2,479만원		

가장 힘든 순간 만남을 영원히 가슴에 남을 수 있는
상조 24 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행사” 를
 책임지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장례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의전 네트워크를 구성

산소이장, 개장, 납골당, 수목장, 해양장 등
 정직한 고품격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춤형 후불식 상품 제공

관리본부장 황준하(14회 동문)
 관리이사 김춘경(14회 동문)

고민하는 “장례절차” 사전에 “무료상담” “장례접수”

대표번호 : 1588-1707, 010-9291-6014

본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9 대양빌딩 608호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53번길 43



**대선이
주도권을
만든다
-대선맨-**



비엔그룹 부회장 **유영호** (27회)

대선소주 모델 김건모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